

후덕하구나 저이 듅직하구나 저이  
저 향아리 시원한 물 한사발 내마음 배불러오누나

한국 YWCA

07+08

Vol. 483/2011

# 참 좋은 당신

● 김용택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섬진강 시인'의 수채화빛 사랑시입니다. 평생 고향 마을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시인에게 '당신'은 '응달지던 내 뒤란에/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이자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만들 수 있는/밝고 환한 빛'으로 다가왔지요. 비 오는 날 활처럼 휘어진 강 길을 따라 우산을 쓰고 마중 나오던, 죽은 나뭇가지에서도 꽃을 피우듯 섬세함으로 세상 아름다운 꽃이 된 당신. 이불보를 빨아 널면 하늘이 다 가려지는 작은 마을에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신접살림을 차리던 그날... 아 생각만 해도 달큰한 당신.



### 표지 류연복

판화가이며 서예가이자 시인인 류연복 선생님은 1980년대 벽화 운동, 민중 목판화 운동의 중심인물이자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진경산수 판화로 유명하다. 2008년 YWCA 독도사랑 캠페인에도 판화엽서로 함께하였으며, 현재 안성에 살면서 작품활동과 함께 환경운동, 공동체운동에 몸담고 있다.

## Contents

- 02 • 시·시인·시심 \_ 참 좋은 당신 \_ 김용택 | 고두현
- 04 • YWCA 현장 속으로
- 06 • 연간기획 \_ 청년정의운동 I \_ 비싼 등록금, 몰락한 대학 | 고부은
- 09 • 청년정의운동 II \_ 가나다에서 인문학으로 | 편집실
- 12 • 청년정의운동 III \_ 희망을 보게하는 우리들의 방식 | 이소영
- 15 • 되찾은 여성, 울림 \_ 청년정의 | 장운재
- 16 • 줄인 I \_ 제4차 YWCA 정의포럼 \_ 청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하여
- 18 • 줄인 II \_ YWBS인터넷 방송국 \_ 1기를 보내며 2기를 맞이하다
- 21 • Y에 바치는 연가 \_ 사천YWCA와 시작한 제2의 인생 | 유명하
- 22 • 회원 이야기 \_ 여성주간행사 행복하데이(day)를 마치고 | 이정숙  
\_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 | 고명정
- 24 • 문화공감 \_ 한류에 맘을 연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 열기 | 김경희
- 26 • 2011 YWCA 세계대회 \_ 그 열정과 감동 | 정동신  
\_ 세계YWCA2035 비전 만들기 | 원영희  
\_ Y는 내 삶의 희망입니다 | 백진주  
\_ 나를 산의 정상으로 이끌어 준 세계대회 | 한지이
- 34 • Y-돌보기 \_ 장차현실
- 35 • 행복한 불편 \_ EM 흠공의 기적을 기대해봅니다 | 손은하
- 36 • 이슈따라잡기 \_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여성단체가 나서야 할 때 | 권부남
- 38 • 7월의 YWCA
- 40 • 8월의 YWCA
- 42 • 연합회 소식
- 44 • 회원YWCA 소식

# 2011.07+08

제47권 제6호 통권483호 2011년 7월 28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차경애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유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트위터 @YWCAKOREA  
 편집디자인 디자인21(02-3443-4877)  
 구독신청안내 구독한조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Y W C A

## 현장 속으로



01 2011YWCA세계대회 한일공동결의문투표현장



02 광주Y\_광주성빈여자 희망관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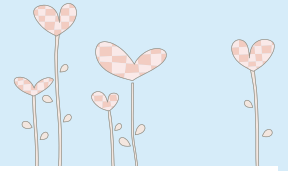
03 서울Y\_2011신혼부부학교



04 부천Y\_사무총장이취임식



05 목포Y\_목포YWCA-진도군 만금친농회 친환경 우렁이 농기



06 부산Y\_남북여성두레방공동체



07 양산Y\_지역주민과 함께하는 EM흙공만들기



08 강릉Y\_새일센터개소식



10 충주Y\_충주상고멘토교육 금융교육



11 여수Y\_청소년도미노대회



09 속초Y\_다문화전문강사문화탐방



12 사천Y\_애들이 밥먹자

# 비싼 등록금, 몰락한 대학

● 글 | 고부음 중앙대 영문과 교수



## 한국 대학의 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지만 가계소득이나 장학금 제도 등을 고려해보면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사실 미국, 일본, 한국 등 소수의 국가를 빼고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 운영비는 정부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이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교육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학 운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에게 대학 운영비를 전가시키는 한국 대학의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대학은 정상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

## 대학, 보편적 학문을 추구하는 자율적 학문 공동체

대학에 해당하는 영어의 university는 라틴어 universitas에서 온 말이다. 이 말은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 즉 선생들과 학생들의 공동체를 줄여 쓴 말이다. university를 한자권에서 대학(大學)이라고 부르는 것은 university의 뜻과는 다르지만 university의 역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실제적인 가르침인 소학(小學)과는 달리 대학(大學)은 사물과 세계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대학이 인간, 사회, 세상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교육하여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서양의 university가 했던 일은 동양의 대학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서양 말인 university의 뜻을 생각해보든 동양 말인 대학의 뜻

을 생각하여 모든 대학(university)은 보편적 학문을 추구하는 학문공동체이다.

자율적 학문공동체로서 12세기경부터 시작된 대학은 보편적 학문을 탐구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왔다. 이로써 대학은 한편으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망을 갖춘 사회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여기에서 보듯이 대학이 인간, 사회, 세계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대학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자율적 학문 공동체로서의 대학은 자율성이 없어져도 대학이라 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전통적으로 대학이 수행하여 왔던 보편적 학문 추구도 하지 않게 되었고 또한 공동으로 협력하며 학문을 탐구하는 자율적 공동체의 면모도 없어져 버렸다. 한국의 대학은 몰락했다.

### 외부 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체제

몰락한 한국 대학의 모습은 우선 교수들에게서 확인된다. 한국의 대학은 학문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수들의 뜻에 의하여 운영되지 않는다. 한국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서 대학 운영은 기업인이나 정치 사회 권력자들로 구성된 사립대학 재단의 이사진 그리고 이런 이사진에 의해 선임된 대학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교수들로 하여금 기업이 원하는 연구를 하게 하거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게 한다. 심지어 어떤 사학재단들은 대학 자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인식하여 축재 수단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끔찍한 것은 그나마 대학의 공공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던 국립대학들도 현재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이 바로 이것이다.

외부 권력과 외부 권력의 하수인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학 체제에서 대학교수들은 대학의 주체가 아니라 대학 운영진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 교수 관리 체제에서 교수들은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하여 교수 업적평가에서 점수가 되는 일은 하지만 점수가 안 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체제에서 교수의 연구는 그 연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문 편수가 중요하다. 교육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강의 평가 점수가 중요하다. 봉사 분야 업적 평가를 위해 교수들은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의 어떤 감투, 대학 내의 어떤 보직이 점수를 더 받느냐를 생각한다. 이런 점수 경쟁 체제에서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교수들은 학문 공동체를 같이 이끌어가는 동료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교수들이 인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학문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다.

### 취업 준비기관이 되어버린 대학

몰락한 한국 대학의 또 다른 모습은 한국의 대학이 취업 준비기관이 되어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대학이 추구해야할 비판적 지성의 함양은 인간에 대한 착취를 바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 그 자체가 기업인 면서 일반 기업에 밀착되어 있는 언론사는 대학 평가를 주도하면서 기업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평가한다. 각종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이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학 역시 자신들의 대학을 자랑할 때 취업이 잘되는 대학임을 내세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졸업인증제는 기업이 대학을 지배하고 유린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졸업인증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평가하

는 영어인증제, 기업실무에 필요한 공학 분야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학인증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은 원래 사원들에게 기업 실무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크든 작든 기업 내에 사원교육 기구를 둔다. 대학이 신입 사원 교육기관이 되면 기업으로서는 기업 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사원 교육 기구의 운영비도 줄이고 또 기업에 비판적인 교육도 봉쇄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는다. 이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대학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이다.

### 대학가에 서점 없어진지 오래

학생들의 면모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학생들은 대학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함양에도 관심이 없고 인간과 사회와 세계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취직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스펙이란 말이 상품의 제원을 뜻하는 specifications에서 온 말임을 생각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상품이 되어서 그 상품 가치를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는 뜻이다. 학점, 공인영어점수, 해외 연수, 학생활동 경력 등이 그런 스펙을 이룬다.


심지어는 봉사활동도 스펙을 위한 것이다.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공부는 대부분 취업에 필요한 공부다. 인간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인문학 책도 읽지 않고 사회를 보는 시각을 형성하게 해주는 사회과학 분야의 책도 읽지 않는다. 대학가에서 서점이 없어진지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공부를 빼고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 나은 스펙을 위한 이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하여 시험공부는 열심히 한다. 더구나 각 대학들이

학과목 성적 부여에서 상대평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학점 취득은 경쟁 구도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 간의 관계를 협동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만든다. 경쟁이 지배하는 곳에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전망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 값비싼 등록금 사치가 되고 만 학문 탐구

한국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대학 교육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기업식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 등록금이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지식 자체에 대한 욕구로서의 학문 탐구나 지성적 인격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는 꿈은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사치가 되고 만다.

보편적 학문 추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성인도 양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한국에는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이 없는 사회는 미래도 없다. 한국에서 대학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대학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기업의 지배와 기업식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운영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등록금 제도가 없어졌을 때 대학은 보편적 학문 추구와 지성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이 대학에 다니면서 지적 욕구를 채우고 지성인이 되어갈 때 대학 교육 이수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인간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재원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자.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에서도 대학 운영비는 정부가 책임진다. 

현대판 계몽운동 : 가나다에서 인문학으로

## 길희성 박사를 만나다

• 글 | 편집실



한국YWCA의 역사는 일제에게 억압받던 시절에 시작되었다. 부당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Y의 선각자들이 시작한 운동은 농촌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 조직화된 권력에 함몰되어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서 인간이 도구화 되어가고 있다. Y의 선각자들이 한글을 가르치며 목적했던 것처럼 오늘 YWCA는 다시 인문학을 통해 인간됨을 일깨우고자 한다. 과거 그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한글은 오늘날 인문학이다.

인문학의 궁극적 목적을 인간 그 자체와 의미의 회복이라 할 때, 인간성 되찾기 운동의 한 길을 걷고 계신 분

이 길희성 박사가 아닐까 한다. 길희성 박사는 한국 종교의 경직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한 방식으로 지난 달 강화도에 '심도학사'를 열었다. 존엄한 인간의 목소리 내기를 삶으로 살고 계신 길희성 박사를 만났다.

**인문학의 위기, 도구적 학문만 강조하는 대학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대학은 '지식산업의 공장'과 같이 되어 살아있는 지성, 주체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다. 대학이 사회의 시스템에 적응해서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시스템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도록 한다. 현실주의자가 되어 현실적용

능력만 뛰어난 학생들로만 가득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사회의 리더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사회 자체에도 희망이 없다.

### 대학의 현실, 물신숭배로 가득 찬 사회에서 인문학이 치료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시지요

인문학은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여, 인간의 지성과 자유를 통해 인간이 물상화, 도구화, 사물화, 기능화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 속에 있는 인간적 가치를 살리는 것이 인문학이다.

### 그렇다면 인문학을 배운다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통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인문학적 소양과 지성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그 차이가 ‘비판적 지성’이라고 본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묻히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자신의 지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 때에 그 시스템도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고 단체와 조직도 건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하나의 소리, 동질성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사회다. 이렇수록 자신의 지성과 양심에 반응하도록 해주는 인문학이 더 필요한데 체제의 소리가 너무 강하다보니 오히려 인문학이 불모지가 되어 버렸다.

비판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양심의 소리를 키워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는 비인간화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주객이 바뀌어 인간이 시스템에 종속된다. 사람들이 시스템 속에서 나사못 박히듯 그 시스템에 휩쓸린다.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양심, 지성, 존엄(dignity), 이러한 것들이 말살돼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스템에 길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라도 ‘비판적 지성’을 살리기 위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인문학 소양과 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인문학 자체도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인문학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지성, 양심, 신앙에서 오는 초월적 자유가 있는데 이 배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문학자들도 세상과 현실의 기존 시스템에 동화되기 쉽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에게는 인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인문학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급박한 현실 속에서 도외시하게 되고 인문학이 학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문학은 어떤 객관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자들의 존재이유는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답을 준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진정한 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물으면서 인간이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살아있는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문학이다. 어떤 시스템에도 지배되지 않고 객체화되지 않는 그 인간성,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 가치는 객관적이다.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길러주고 훈련하고 북돋아주고 말살시키지 않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인문학의 존재이유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 회사, 대학, 종교이다.

인문학은 어떤 고정된 메시지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게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일까 내가 정말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 질문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의 초월적 자유에 대한

존중, 양심, 존엄성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도록 한다. 인간에 대한 초월적·종교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우리와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삶속에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 핵심은 인문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인문적 가치’를 어떻게 살릴까에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인문학적 소양을 존중하고 그것이 신성한 것이라 믿는다.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 한 인류적 가치이며 나아가 이것이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에 노예가 되지 않고 현실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것은 인문학적 정신이나 종교적 정신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문적 가치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특정 그룹이나 인문학자만의 일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가면 된다. 훌륭한 영화 한 편에 감동을 받고 그 순간 매몰되었던 인간성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핵심은 비인간화시키려는 체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목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와 조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YWCA도 인문정신을 가지고 인문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YWCA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즉 한 인간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속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인문적 가치의 불씨를 일으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박사님은 ‘졸업하면 강통 차는’ 철학을 전공하시고 신학, 종교학을 하셨는데 현실적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밥벌이가 되지 않는 철학으로 시작해서... 이걸 기적이다. 물론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밥은 굶더라도 이상(idealism)만은 잃지 않았다.

밥벌이가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인문학을 할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 인문학도 마찬가지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만이 사회를 일깨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현실을 안다. 청년실업문제, 등록금 문제 등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이 어떻든 바로 이 현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문학의 힘이다. 인문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존엄과 자유, 비판적 지성과 양심의 소리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부조리한 현실, 희망을 보게 하는 우리들의 방식

● 글 | 이소영 서울대학신문 전 편집장



## 현실은 살아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팔려가네”라는 구절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브로콜리너마저’의 ‘졸업’의 한 구절이다. 팔려간다는 말처럼 현대 청년들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은 없을 듯하다. 자본주의는 극도로 발전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살아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아직까지 그 대가로 지불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판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대학에 들어와서는 더 높은 자리에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팔려가네”라는 구절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브로콜리너마저’의 ‘졸업’의 한 구절이다.

앞기 위해 사회에 나가서는 조금 더 ‘잘’먹고 ‘잘’살기 위해, 우리는 꿈을 팔고 가치를 팔고, 신념을 판다. 그래야만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팔고 또 팔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아니 보통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그야말로 ‘미친 세상’이다.

‘미친 세상’의 유지 동력은 가난에 대한 불안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남보다 덜 가진 것’과 ‘불행’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이런 사회에서 개인은 가난해질까봐, 불행해질까봐 불안하다. 개인의 불안을 부추김으로써 사회는 자신의 구조를 재생산한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끝없는 경쟁의 굴레 속에서 패자는 좌절하고, 승자 역시 불안에 지쳐간다.

모두가 불안하고 그래서 모두가 불행한 이 사회에서, 청년들은 유독 더 불안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명제는 청년이 겪는 온갖 '아픔'들을 '앞으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경험으로 치부해버린다. 우리 사회의 사전은 청년의 '靑'자를 푸른 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꽃사과, 꽃고추처럼 덜 익은 유보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가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이므로 우리는 성숙해 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사회는 끊임 없이 꿈을 유예하게 하고 이에 대한 분노마저 유예하게 한다. 이들은 청년에게 빛나는 미래라는 허상을 심어주는 대가로 현실을 저당잡힐 것을 요구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성숙해질 수 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픔을 받아들이고 견뎌라, 기다려라"고.

### 청년들은 또다시 꿈을 유예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사회에서 청년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유보된 존재일 뿐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유예의 과정에 불과하다. 대학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학문의 전당이니 진리의 상아탑이니 하는 대학은 그 본 사명을 잊은지 오래다.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관인 대학은 경제 발전과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이 됐다. 대학은 '팔리는' 순위에 따라 학문에 서열을 부과하고 팔리는 순위에 따라 스스로의 순위를 매긴다. 더 잘 팔리는 기관이 되기 위해, 혹은 학생들을 더 잘 팔기 위해 스스로를 기업에 바치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제 대학에서는 더 이상 바람직하게, 가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학은 더 잘 사는 법,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됐다. 이제 대학은 고학력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대학에 가면 꿈을 꾸고 그를 실현하는 법을 배울거라 믿던 청년들은 또다시 꿈을 유예하는 법을 배운다. 뭔가 잘못됐다 싶을 때 사회는 다시 속삭인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라고.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념을 희생하고 '아픔'을 견뎌낸 대가,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모아 낸 등록금의 대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강도 높은 노동, 비인간적인 처우다. 아프니까 청춘인 여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 청년들은 '청춘'을 벗어나도 여전히 아프다. 결국 청년들은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다 꿈을 더 유예하고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거나 그러한 부조리와 불합리에 순응하고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나는 희망을 본다


3년 가까이 학보사에서 기자 일을 하며 이 미친 세상의 양태와 이에 절망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 왔기에, '20대 포기론', '20대 개새끼론'과 같은 청년담론들을 접해왔기에 스스로가 청년이면서도 청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청년들은 모습에서 나는 희망을 본다. 법인화에 분노하고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징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본부 점거에 힘을 보태고 시험기간임에도 도서관이 아닌 본부에서 투쟁과 공부를 함께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모습은 현실에 파묻혀 순응하고 매몰되기보다는 발버둥치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이 시대의 장한 청년의 모습이다. 노래하고 춤추며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날라리'들은 각박한 시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청년들을 대표한다. 몇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고 화염병을 던지며 열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

라 잔디에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해 수백 명이 한바탕 노는 것이, 다함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방식이다. 힘든 현실은 잘못된 구조 앞에 선 청년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팔다리 또한 묶어 놓으려하지만 청년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결코 매몰되지 않고 일어나려 발버둥친다. 우리는 사실 분노할 줄 알았고 모일 줄 알았던 것이다.

차곡차곡 결집된 우리의 분노는 팍팍한 현실의 표면이 아닌 썩어버린 사회의 뿌리를 향한다. ‘반값등록금’ 투쟁은 단순히 등록금이 내기 싫어서, 너무 비싸서 혹은 그저 집권세력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짜증이 나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법인화를 막기 위한 학생들의 행정관(본부) 점거 역시 단지 등록금이 인상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청년들의 요구는 다만 돈을 더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분노는 비싼 등록금의 대가로 제공되는 단순 직업 교육에, 사라져가는 교육의 공공성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의 운영에, 땀흘려 노동해도 ‘잘’ 살기는커녕 그저 살아가지도 힘든 현실에, 이 미친 세상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년들의 움직임은 소위 당사자 투쟁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고 더 넓은 범주에서 사회의 변혁을 외친다. 연대의 손길은 대학의 청소노동자부터 홍대의 한 작은 식당, 부산 영도의 한 조선소 크레인 위까지 뻗어나간다. 우리는 “이 미친 세상에” 분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낸다.

년의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나는 집에서 등록금과 용돈을 타 쓰는 어떤 청년에 비하면 ‘더’ 아프지만,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몇 배의 시급을 받는 과외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특권층 청년이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다른 청년들의 눈에 교육 공공성이라는 ‘고상한’ 이유를 외치며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또 나에게겐 아르바이트로 고단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에 신용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정의가 있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친 세상”이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나는 이제 우리 속에서 희망을 느낀다. 지난 6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대 학생들은 잔디에서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락 페스티벌 ‘본부스타’를 개최했다. 하나가 된 목소리 속에서 잔잔한 음악에 맞춰 좌우로 흔들던 팔들이, 흥겨운 리듬에 들썩대던 어깨들이 “이 미친 세상에”를 외치며 힘찬 팔뚝질로 변하는 것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우리 청년들의 이 팔이, 이 미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라는 것을. 

**하나가 된 목소리,  
잔잔한 음악에 맞춰  
흔들던 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정의는 무엇일까? 청년을 정의(定意)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에 청

#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31:13)

성서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잃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세대’, 즉 우리의 청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청년들이 갈 길을 잃었고, 자신을 잃었고, 또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의 20대는 능력 있는 세대인 동시에 가장 불행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88만원 세대’라고도 불리는 이 세대는 어려서 학원을 전전하며 경쟁을 배웠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등록금 빚이 쌓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실업의 벽에 부딪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취직을 해도,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도 우리의 기성세대는 출구도 없는 캄캄한 무한 경쟁의 동굴 속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 넣기만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동굴의 끝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유명한 포도밭 일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고용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쯤에 다시 일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하루 품삯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나는 너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너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

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똑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생명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자비의 정의입니다. 애정의 정의입니다.

저는 오늘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가장 늦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이 포도원에 합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데나리온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에서 생명의 기회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정의가 바로 ‘생명정의’요 또한 ‘청년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청년과 노인을 ‘함께’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빛이 있는 한 우리 청년들을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7월 YWCA 월례아침기도회, 장윤재 목사 말씀〉



# 청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하여

지난 6월 30일 연합회 강당에서 4차 정의포럼이 열렸다. ‘청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YWCA와 우리 사회에서 세워나가야 할 청년정의에 대해 고민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무엇보다 ‘청년’과 ‘청년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보고 되새겨봄으로써, 우리가 무심결에 미숙하다고만 간주했던 청년 그 자체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었다. 김기동 연합회 청년운동팀 위원의 발제 ‘청년예수운동과 YWCA운동’을 통해 Y청년운동을 돌아보고, 이어 최윤진 중대 청소년학과 교수의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청(소)년 정의운동’ 발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가야 할 청년운동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최유라 YWBS인터넷 방송국 1기 아나운서의 ‘20대가 말하는 청년 정의운동’의 발제를 통해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김기동 위원은 ‘청년은 행동의 주체인가 아니면 교육의 대상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청년 안에 이미 ‘스스로 생명을 일궈내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청년성’으로 정의했다. 청년성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 이인 청년예수는 척박한 땅,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의 역할을 다하였다. 청년예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기억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인간 대접 받지 못하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며 보여주신 인간성의 회복, 돌봄과 상생, 평등과 존중의 가치다. 이것은 Y가 청년운동으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김 위원은 또 정신질환과 같이 확산되어 가는 획일적인 성공강박증에서 청년들을 해방시킬 책임이 Y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Y 청년운동이 ‘스스로 일궈내는 생명의 힘’을 믿고 시대를 치유하는 대안적 가치를 전파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윤진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산업사회를 거치며 변화한 청(소)년의 의미를 되짚으며 오늘날 청소년기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청소년기는 신체·생리적으로 이미 성인과 다름없는 존재이나, 사회적으로 무기력하고 미숙한 아동처럼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역할 과업 수행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자립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의미한다. 또한



▶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있는 김기동 위원



▶ 두 번째 발제자 최윤진 교수




▶ 20대 청년정의를 말하는 박유라 YWBS01아나운서

이는 청소년 인권 논의와 연결이 되는데,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청소년이 가진 역량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을 예비시민이 아닌 오늘의 주요시민으로 인식하고 사회 내에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리를 적극 행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유라 YWBS아나운서는 '청년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0대들은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도 없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의 삶은 취업하기 전 단계로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비취질 수도 있는 청년들을 비난하기 전에 사회에서 청

년정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전국의 회원YWCA대표단의 포럼에 참여하는 진지함과 열정은 이번 포럼에서도 빛을 발하였다. 청년예수운동과 YWCA운동을 통해 가슴 속에 '청년성'을 품고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청소년 운동으로서 무엇보다 그들을 오늘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함께 사회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20대의 현실을 직접 들으며, 지난한 그들의 삶이 기성세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통감하며 마음 아파하였다. '청년정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오늘도 YWCA는 사회에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 

## 청년으로서 청년정의포럼에 참가하다

● 글 | 김은지 YWCA연합회 청소년팀

제4차 정의포럼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Y 청년정의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청년성의 의미를 예수님에서 찾아보면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청년이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열정과 도전을 청년성으로 바라보았다. 이 시대 청년들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직까지도 나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사회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 김기동 선생님의 발제 내용처럼 더 이상 과거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청년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정의를 외치고 청년운동을 하고 있는 YWCA에서 이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와 함께 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청년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나 또한 그렇다. 하지만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정의와 가치를 논하는 것에는 한 발짝 물러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YWCA의 청년정의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 꿈과 희망이 될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YWCA의 청년정의운동이 그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YWCA의 청년정의운동이 이 시대 아파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돌봄과 나눔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YWBS인터넷 방송국, 1기를 보내며 2기를 맞이하다

● 글 | 이슬비 연합회 운동국 간사

## 변화를 위한 젊은이들의 힘찬 발걸음, 그 1막을 내리며.

6월 27일, 연합회에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 YWCA 인터넷 방송국 1기 아나운서 송별회가 열려 1기와 2기 아나운서가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방송을 해 온 1기 아나운서들이기에 해 주고 싶은 말도 많았을 터. 2기 아나운서들 소개에 이어 1기 아나운서 활동영상을 함께 보고, 선배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물으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방송국을 시작하여 오늘 송별회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이 영화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처음 길을 닦는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책임을 다한 1기 아나운서들에게 고마움과 이별의 아쉬움이 섞여 가슴이 벅찼다.

## YWCA, NGO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다


방송국을 처음 시작하고 청취자가 없어서 가장 힘들었다. 4월부터는 세이클럽방송뿐 아니라 아프리카TV 채널을 열었고, 아나운서들의 노하우가 쌓여 방송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하루 평균 500여명이 다녀가는 방송으로 급성장했다. 4~6월까지 두 달 여간 총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YWBS 방송에 다녀갔다. 청취자들은 아나운서들에게 응원의 표시로 일종의 기부금인 '별풍선'을 주었다. 27만원 가까이 되는 이 금

액은 1기의 이름으로 기부되어, YWBS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국이 성장하기 까지 땀 흘린 1기 아나운서와 PD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

## YWBS의 1기가 갖는 의미

방송을 하는 동안 청취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YWCA가 어떤 곳이야'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참 행복하다. YWCA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또 1기아나운서와 친목을 쌓으며 매일같이 방송을 들으러 오는 애청자들이 생겨, 더욱 힘이 난다.

## 변화를 위해 한 발짝 더 내딛는 YWBS 2기 출발!

1기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이어 2기 아나운서들이 월~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요일 별 방송을 한다. 'YWCA 정의'를 2기 방송의 주제로 잡고 모든 코너에 정의의 관점이 녹아들도록 한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YWCA 정의 릴레이 코너에서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해본다. 또한 특별히 제작한 YWBS CM송과 YWCA 단신도 매일 코너로 자리매김했다. 2기 아나운서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며, 새로운 6개월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 YWBS 1기 아나운서 활동 소감

### YWBS 1기 김지선

YWBS아나운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1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새롭게 방송을 만들어 간다는 게 부담도 되었지만, 내가 그 첫 걸음을 밟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 떨림과 감사함도 잠시, 저조한 시청률에 쓸쓸했던 시간도 기억난다. 하지만 YWCA 89주년 행사 진행 후 급작스러운 시청률 증가로 즐기면서 방송을 하게 되었다. 시청자, 청취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시간은 너무 짧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다. YWBS는 내가 아나운서라는 그 꿈이 사라져 갈 때, 나에게 다시금 희망과 꿈을 갖게 해주었고 '앞으로 어떤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더욱 큰 사람 되어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아나운서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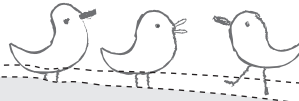
### YWBS 1기 백인화

YWCA와 소통한 첫 번째 날 2월 14일. 그 날은 매우 뜻 깊은 날로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다.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마지막 방송까지 약 20번의 방송을 통해 매주 월요일 청취자들과 만났다. '만남'은 언제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듯 YWBS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취자들과 소통했던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나는 YWBS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YWCA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제 YWBS 활동이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Y회원으로서는 YWCA와의 소중한 인연을 평생 이어나가려고 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어떤 일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YWBS가 앞으로 계속 자라갈 것이라 믿는다.

### YWBS 1기 양영경

매주 화요일, 시계가 11시 반을 가리키면 Y의 이로운 입을 알리는 목소리는 인터넷을 타고 전국에 퍼진다. 특히 사회 속에서 꿈틀대는 보석 같은 Y의 이야기를 전할 때면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가운데, 미모의 공중파 아나운서보다도 사회의 이슈를 당당하게 전하는 아나운서이기에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허나 지난 4개월이 마냥 쉬웠던 것은 아니다. YWBS의 초석을 닦는 1기였던 만큼 가파른 변혁의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힘들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무렵,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열정, 여기는 한국YWCA인터넷 방송국 YWBS입니다'라는 멘트가 과거형으로 남게 되었다.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짙은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Y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무궁무진한 실재들을 글로써, 말로써 전할 수 있었음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나갈 2기들의 출발에 성원을 보낸다. 앞으로 Y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YWBS를 기대한다.

## YWBS 2기 아나운서 각오



김민지 (이대 통계학과)



항상 꿈꿔오던 방송 매체에서 YWCA의 참된 정신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학생인 내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해왔다. 언젠가 훌륭한 위치에서 내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남을 같이 돌아보는 자세를 잊지 않고 새겨두는 것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YWCA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 더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전해줄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내가 YWCA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작은 노력이나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촉구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바꾸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방송을 통해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할 것이다. YWBS 2기 아나운서 파이팅^^



박주현 (이대 생물공학과)

신은정 (중대 유아교육)



방송기자 지망생으로서 YWCA의 청년운동, 여성운동, 기독교운동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에 공감하기에 2기 아나운서로 지원하였다. 청취자들이 기쁘, 나눔 등 세상에 빛을 더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안내하고, 나 역시 동참하려 한다. '우리'의 힘을 모아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내 자신의 말하기, 글쓰기, 소통능력의 성장뿐만 아니라 YWBS의 인지도와 선한 영향력도 쑥쑥 자라나기를 또한 소망한다. 동기들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협력하며 기도하겠다.

먼저 YWCA 인터넷 방송국 YWBS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설레며 기쁘게 생각한다. YWBS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다. 특히 여성인권을 위한 대표적 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도 6개월 동안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 방송의 지향점은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다. 앞으로 스무 번 이상의 방송이 남아있는데, 대본을 쓰면서 YWCA의 '정의'라는 주제 아래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주제로 청취자를 찾아갈 것이다. 첫 방송의 설렘을 갖고 항상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정지희(교황학과)



정유리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 사천YWCA와 시작한 제2의 인생

● 글 | 유명아 사천Y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지 거의 13년이 되어갑니다.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한 친구로부터 사천YWCA에서 한국어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사천Y와 인연을 맺어 한국어 공부도 하고 외부의 다양한 체험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관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들이 정도로 나의 생활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같은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고민들도 털어놓아 서로 조언도 주고받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한동안 수다를 떨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같은 이민여성들도 사귀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 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선생님들도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뭐든 잘 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여성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

램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어서 우리 이주민 여성들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천YWCA 덕분에 제 좁은 시야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선생님들 도움으로 글쓰기와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곤 하였는데 이런 경험들 때문에 사라진 자신감과 희망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한국어를 공부한 어느 날 같은 필리핀 이민여성인 제게 자원봉사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해서 처음엔 너무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어서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선생님께서 “유명아씨는 잘 할 수 있어요”라고 용기를 주시고 계속 권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를 이토록 깊게 믿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보리라 다짐하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집에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명아씨

그 이후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자원 봉사자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같은 이주여성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보람도 느낍니다. 요즘은 다른 일들이 겹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서 아쉬움이 많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나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봅니다. 다시 한 번 사천YWCA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 여성주간행사 행복하데이 (Day) 를 마치고...



● 글 | 이정숙 진해YWCA 자원봉사자


진해YWCA는 그동안 여성운동단체답게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의 권리 증진과 권익 보호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왔다. 이런 진해 Y에서 이번 '제16회 여성주간맞이 기념행사를 빠뜨릴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종종 어르신들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무슨 고리타분한 말씀이신가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번 진해YWCA가 주최한 '행복하데이(Day)' 양성평등을 향한 여성주간 행사에 참석한 나는 내 스스로 "와! 세상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절로 하게 되었다.

세상의 여자들이 불평등하다고 남, 여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더니, 정말 요즘 아빠들은 부인이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지극정성 잘하고 있었다.

한 참가자는 부인이 임신 3개월째라고 했다. 참가 동기가 퇴근하고 집안 살림을 도와주는데, 평등하게 부인이 차려준 밥상도 받아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이다. 다른 참가 가족들도 옛날 같으면 아빠가 이런 행사에 참가해 울동을 하고 가족사진을 찍고 하는 일들은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우리나라 아빠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다. 이러한 아빠들의 자연스런 행동과 의식을 통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를 똑같이 생각하며 자라날 것 같다. 아빠가 디자이너가 되어 신문지로 옷을 만들어 가족에게 입힐 때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에 박장대소 하며 즐거워했던 기억,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거창한 계획을 짜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정에서 남편이자 아빠인 남자들이 내 아이들에게 남녀 차별하지 않고,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면, 한 가정의 엄마로서 여자로서,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진해YWCA 행사는 모든 가족이 참여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다'라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되었다. 서로의 개성을 중시하여 조화롭게 살아보자는 양성평등이란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족들이 화합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상들이 진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진해YWCA가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진해YWCA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되고 YWCA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

● 글 | 고명정 진주YWCA 실무자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저녁 6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강당에 진주YWCA실무자 포함, 진주지역 여성단체 실무자들과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제 16회 여성주간을 축하하고 '여성친화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자리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진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장이다.

함박꽃만한 노랑 꽃봉오리 머리띠를 함께 착용한 참가자들은 먼저 각 단체에서 준비한 전시부스에 참여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문화퀴즈에 응모하고 식당여성노동자의 호칭에 대한 제안을 하고, 한반도평화선언 서명을 하였으며 성폭력바로알기 미로찾아가기를 하였다.

7시, 본격적인 기념행사가 시작되어 지역남성대표로 초청한 강수동 의장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축사를 들으며 '가정 내 남녀평등지수'에 대한 기습질문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띄웠다. 여는 공연 (그림책빛그림-돼지책)을 시작으로 각 단체에서 준비한 의제발표 (진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학교조리종사원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 연극(함께 짓는 밥), 이주여성들이 준비한 보이는 라디오 (이주여성, 진주에서 함께 옷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지나고 참가자들은 모두 거리로 나가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한 달빛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진주YWCA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번 여성주간행사를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여성들을 위해 일하는 동지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성들의 모임과 연대는 역동적이면서도 간결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군더더기 없이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각 단체의 색깔을 잘 담아낸 행사 내용들로 참 유쾌한 여성주간이었다. ♡

# 한류에 맘을 연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 열기

• 글 | 김경희 한국문화교류재단 사무국장

거의 매일 신문이나 TV를 통해 전해지는 해외 한류팬들의 뉴스를 보면서 한류의 실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극히 일부의 얘기거나 한때 그러고 마는 거겠지.. 혹은 언론의 호들갑일거야 등등.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류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상당히 널리, 그리고 강렬하게 퍼져 있다. 어떤 이는 한국인의 피에 내재된 신명이 마침내 발현한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연예 기획사들의 치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여러 갈래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류가 거대한 실체인 것만은 분명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18명의 통신원들이 속속 현지의 한류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특히 K-POP을 중심으로 열띤 반응이 이어졌다. 현재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유럽과 남미 지역의 K-POP사랑은 지난해 재단 통신원들을 통해 이미 전해진 것들이다. “파리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헤드셋으로 K-POP을 들으며 그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짝퉁 슈퍼주니어가 이미 스타 대접을 받으며 행사를 뛰고 있다” 유럽과 남미 통신원들은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떠오른다는 사실을 한국에서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개중에는 참으로 믿기 힘든 ‘한류사랑’ 사연들도 많다. 지난해 우즈베

키스탄 통신원은 드라마 <대장금>에 빠진 90세 할머니의 한류사랑 얘기를 전해왔다. 그는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생전에 <당깼>(대장금의 현지발음)을 다보고 죽을 수 있도록 하루에 몰아서 방영해 줄 수 없느냐”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편지를 방송사에 보내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이웃나라 카자흐스탄에 K-POP가수들과 <주몽>의 주연배우 송일국이 방문했다는데 왜 우즈베키스탄에는 아무도 안오냐”며 서운해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마치 한류스타 사랑을 놓고 이웃나라끼리 경쟁하는 양상이다. 필자도 ‘한류사랑’ 덕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지난해 2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지역구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K-POP 공연팀을 이끌고 갔었다. 그곳에서 지역구 관계자에게 아이돌스타의 사인이 든 CD를 전달했는데, 몇 달 후 하토야마 전 총리로부터 친필 편지가 날아왔다. “짜인 일정 틈틈이 K-POP스타들의 음악을 들으며 망중한을 즐긴다”는 감사의 내용이였다. 최근 한 학술회의에 참가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세계 어떤 중간 국가도 한국처럼 자기 체급 이상의 편치를 날리는 문화를 가진 경우는 없다”며 “언어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거의 대부분, 심지어 라틴아메리카에까지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필자가 맨 처음 한류현장을 목격한 것은 2004년 여름 일



▶ 슈퍼주니어에 열광하는 일본팬들.


본 사이타마에서였다. 이병헌 권상우 등이 출연하는 '한류 4 대천왕 서밋' 뒤 그런 제목의 행사였는데 콘서트도 아닌 토크쇼에 행사 서너 시간 전부터 색색의 우산을 쓴 일본의 중년부인들 수백 명이 꼬리를 물고 줄을 서 있었다. 도대체 이건 뭐지? 솔직히 '국력콤플렉스 시대'를 거친 필자로서는 처음 맛보는 문화적 충격이었고 엄청난 희열이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부터 시작됐다. 가부장적인 '대밭이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이 드라마가 동남아인들에게 어필한 이후 'H.O.T'와 'S.E.S'가 중국공략에 나섰다 2003년 <겨울연가>가 일본시장을 평정하며 본격적인 한류가 펼쳐졌다. 이후 한류드라마와 K-POP은 중동과 중앙아시아, 중남미로 영역을 넓혔고, 요즘은 유럽에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가 이처럼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뭔가. 누구도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한류 콘텐츠가 상당히 완성도 높고, 그를 소화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들의 기량이 뛰어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일찍이 가무를 즐겼던 한민족 특유의 신명 때문일까. 해외 한류팬은 한류스타들의 체취가 강렬하고 매혹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일본인은 "한류스타들은 노래든 연기든 외모든 모든 게 강렬하고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그 다음으로 영세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몸집을 키

우려는 연예기획사들이 노력을 들 수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줄기차게 중국시장을 공략해왔으며 그 경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도 작곡가는 물론 안무가까지 미국의 최정상급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수준에 발맞추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 SNS 등 웹기반 환경을 들 수 있다. K-POP의 전성시대는 유튜브를 통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과 중남미지역의 K-POP팬은 한류스타의 공연을 실제로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온라인 팬들이다. 사실 아시아권에서 한류가 맹위를 떨치기 오래전, 홍콩류 일본류가 아시아를 휩쓸었다. 지금의 중년세대는 우리 TV에서 홍콩스타 주윤발이나 장국영의 광고를 봤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또 안전지대 소년대 엑스재팬 등 일본 아이돌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서 아시아를 석권했던 그들은 전 세계를 엮는 '온라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시아권에 머물렀다. 한류는 그들과 달리 유튜브나 SNS를 통해 '동시에, 세계 전역에, 그리고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한류는 유사 이래 우리 역사를 가장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도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로 타국의 문화에 대해 맘을 열었으면 한다. 그것이 한류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로 장수시키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 제27회 YWCA 세계대회, 그 열정과 감동

● 글 | 정동신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제27회 YWCA 세계대회가 2011년 7월 10일-16일까지 스위스 취리히 콩그레스하우스(Kongresshaus)에서 “여성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간(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취리히는 취리히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리마트강 연안에 있으며 스위스의 주요 상업적, 문화적 중심이자 문화수도로 불리기도 하는 도시다. 또한 취리히는 16세기 초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곳이자 근대교육의 창시자인 ‘페스탈로찌’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YWCA의 세계대회(World Council)은 매 4년마다 한번씩 열리며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서 주력운동을 결정하고 회장, 회계, 이사 등을 선출하는 것 등으로 진행된다.

올 세계대회 일정은 처음 이틀간은 Pre-Council 기간으로 본회의에 앞서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 등이 진행되며 중간 이틀간은 IWS(International Women's Summit), 즉 국제여성회담 기간으로 YWCA 회원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NGO 단체와 정부기관 등이 함께 ‘여성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다. 세계대회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 3일간 열린 본회로서 차기회장, 회계, 이사 선출과 주력운동, 역량강화 워크숍, 현장 개정, 예산승인 등

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세계 125개국의 회원국에서 약 100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올해 세계대회에 한국 YWCA는 6명의 정식대표 포함, 총 18명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도착 첫날 세계 YWCA 자매들이 각각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속속 등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에 서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의 고귀성과 존엄성을 인식시켜주는 시간이었으며 다양성의 아름다움, 다름의 조화, YWCA의 목적과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해가려는 모습이 돋보여 아름다웠다. 특히 각각의 삶의 안일함을 벗어내고 함께 살아가며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YWCA 자매들의 모습은 감동과 감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도착 첫날 7월 10일은 이사회와 젊은 여성의 밤을 시작으로 하여 7월 11일 젊은 여성들의 리더십과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세계 YWCA의 젊은 여성 리더십 전략을 정의하는 젊은 여성지도력과의 대화, 젊은 여성의 리더십 간담회, 운동성 및 능력강화, 능력 증진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저녁 6시부터는 취리히 중심부에 있는 프라우

윈스터 성당에서 개회 예배를 드렸다. 프라우윈스터 성당은 고딕 양식의 수도원으로 853년 세워진 수도원 건물을 12-14세기에 걸쳐 개축한 견고해 보이는 성당으로 이곳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와 기쁨과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다.

7월 12일은 IWS 국제 여성 회담 본회1로 '여성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과 인권 부분의 Mary Robinson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IWS 본회2는 '모든 여성의 안전한 성과 임신의 권리'를 주제로 열렸고, 저녁 6시부터는 스위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만찬의 시간 '스위스 밤'이 이어졌다. 이날 스위스의 치즈 풍뎉(Cheese Fondue)를 먹을 기회도 있었다. 7월 13일 IWS 본회3은 '여성에 대한 폭력 단절과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정의 확립'을 주제로 열렸고 IWS 본회4는 '여성과 소녀를 위한 안전한 장소 요구'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7월 14일 본회의에서는 새 회원국 가입, 회원국 자격 변경 승인, 운영 및 진행규정 수락, 회장, 사무총장 연설, 4년 보고서, 공천위원회 보고, 회장과 회계후보 연설, 비즈니스 회의로 2012-2015 주력사업 및 예산 제안, 회장, 회계 선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새 회원국으로는 캐리비안에 위치하며 대서양과 캐리비안해 사이 쿠바의 남동쪽에 있는 아이티 YWCA와 캐리비안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U.S. 버진 YWCA가 승인되었다.

또 목요일-금요일 저녁8시부터는 지역회의가 열렸다. 지역회의는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지역, 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태평양지역 YWCA가 지역별로 그룹으로 모여 세계대회 비즈니스 회의의 어젠다에 대한 세계 YWCA의 정책초안을 협의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의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행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5일 본회에서는 공천위원회 보고, Pre-council 보고, 현장개정제안으로 이번에 승인이 필요한 YWCA는 콩고 민주공화국, 영국, 인도 YWCA와 세계 YWCA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역량 강화 및 결의문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으며, 승인이 필요한 결의문 제안으로 스웨덴 YWCA-YMCA의 '환경정의를 통한 여성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과 한국과 일본 YWCA의 '평화로의 호소: 북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인권 증진'이 있었고 한국 YWCA가 준비한 시간에는 많은 나라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시간에 한국 YWCA가 발표한 영상자료에는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아픈 현실이 잘 전달되었으며 한국 YWCA의 젊은 대표들의 발표와 역할에 많은 대표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 이날 2012-2015년 세계 YWCA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에 토바고의 드브라, 회계에 미국의 캐롤린이 발표되자 세계의 모든 YWCA 대표들이 일어나 춤과 노래로 축하를 하였다.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이사투



▶ 세계YWCA 신입대표단 소개



▶ 젊은 여성의 밤



▶ 스위스의 밤



▶ 캣워크 프로그램, 가운데 최윤영 간사, 한지이 이화Y 부회장



▶ 북한관련결의문워크숍토의과정



▶ 왼쪽 원영희 세계Y 이사


표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원영희 실행위원이 출마하였다.

7월 16일 본회와 공천위원회 보고, 결의문, 정책간담회, 2012-2015 주력운동 및 예산토의가 있었고, 주력운동 제안 내용은 세계 YWCA의 비전과 목적, 가치, 프로그램과 전략들이 있다. 이날 아침 공천위원회 보고에서 이사투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한국 YWCA 실행위원인 원영희 위원이 당선되었다. 세계 Y 이사회 구성은 회장, 회계(회장과 다른 나라 출신), 6명의 부회장(세계 Y 이사회 출신, 각 지역별 1인)이며 적어도 선거 시기에 30세 이하인 여성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한국YWCA의 '평화로의 호소: 북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인권 증진' 결의문이 채택이 되었으므로 한국 YWCA가 세계YWCA와 공조하여 북한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지원 역할이 기대된다. 매일 (화-금)까지 오전과 오후에 열린 IWS Breakout Session과 워크숍 시간에 각 나라 대표들과 한국 대표들은 열심히 참여하였고 열심히 토론하였다. 특히 매일 쉬는 시간에 열린 각국 YWCA 장터는 흥미를 주었고 특히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45분까지 열린 예배는 큰 은혜를 주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순으로 이어졌고 세계 YWCA의 영성회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으며, 크고 작은 YWCA 간의 힘과 균형의 원천이 성령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은총임을 깨닫게 해주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YWCA는 그 규모가 다양하다. 특히 프로그램, 사업, YWCA 목적 및 정체성 이해,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세계 YWCA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언제나 기도와 거룩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가장 뛰어난 한국 YWCA의 모든 지도자에게 새삼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향력으로 세계 YWCA를 세우는 역할의 필요성과 일종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낀 대회였다.

그리고 세계 YWCA 건강한 성장과 각각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미래 사회 속에서의 역할, 세계 YWCA의 비전과 목적과 가치, 프로그램 전략들이 잘 이루어지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기도가 요청된다.

2011년 7월 12일 아침 예배 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가지만으로 족하니라.”(눅10:38-42) 우리YWCA의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요청되는 시간이었다. 뻘뻘한 일정과 피곤함,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그러나 행복했던 세계 YWCA의 자매들과의 만남과 대회였다! 

## 세계YWCA 2035 비전만들기- 젊은 지도력 개발을 향하여

● 글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WCA 이사

제27차 세계YWCA 대회 주제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여성'이다. 이번 세계대회도 국제여성정상회의 (International Women's Summit)가 열렸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미래를 위한 여성리더 양육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전략적 틀짜기 그리고 2035년을 향한 비전만들기 ('2035 Visioning')였다.

한국Y가 지속 연구하고 동참해야 할 젊은 Y여성리더 양육을 위한 토론 세부주제로는 나눔과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위한 세대 간 대화 (Intergenerational Dialogue on Shared, Transformative Leadership)전략, 모녀보건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운동, 여성정치지도력개발 촉진을 위한 혁신적인 파트너십,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방지(VAW)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 기술개발, 변화를 위한 여성기금조성 등이 있었다.

2035년도 중장기 비전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대회참여자 전원을 12개 조로 나누어 진행한 '비전만들기'세션은 온전히 젊은 지도력개발을 위한 질문과 토론 그리고 격려의 장이었다. '세계YWCA 2035 비전만들기' 운동의 목표는 세계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와 권리 신장을 위한 지역적이고 범세계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지원, 전문성, 지식개발, 4년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의 설정, 삶의 변화 지원하기 등이며, 이를 위한 전 지구적 젊은 여성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한편, N. 굼본즈반다 사무총장은 총회사전회의 개회사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력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 세계 YWCA가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나눔과 변화주도적 지도력 세우기에 주력함으로써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사명'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Y도 Y여성리더십 확장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이번 국제여성정상회의의 주제가 특히 와 닿았다. 이 주제들

은 한국Y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동참해야 할 것들이다. 젊은 Y여성리더 양육과 젊은 지도력개발을 위한 한국Y의 모델과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때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세계Y의 모델링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Y는 내 삶의 희망입니다

● 글 | 백진주 제주YWCA 사무총장

나는 전국 사무총장 대표로 YWCA세계대회에 참가 하였다. 겉으로 전혀 목사 같지 않은 나,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철저히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인 나,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내 삶에 늘 개입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대회를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세계대회를 참가하면서, 한국Y의 위상이 세계에서 3위안에 드는 강력한 회원국임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세계Y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들은 한국Y에서 이미 오래 전에 다루었던 주제들이던 것도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 면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각 나라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세계대회의 참가 대표 구성면에서 제안을 해본다면, 세계대회는 이미 젊은 지도력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Y나, 청년Y회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젊은이들의 섹션에서 훌륭하게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하는 최윤영 간사나, 조희선, 한지이처럼 세계대회 대표를 구성하여 세대 간 Y정신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야함을 느꼈다. 한국Y는 세계Y의 멤버 중 리더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는 좋은 경험이었다.

Y세계대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재충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기도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다짐한다. Y는 내 삶의 희망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YWCA실무자로 18년을 일하면서 세계대회라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

## 나를 산의 정상으로 이끌어 준 YWCA세계대회

● 글 | 한지이 이화Y 부회장

취리히 호수 물가에 투영되어 피어오른 구름들이 하늘에 무리지어, 하나같이 맑고 투명한 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World Council 2011는 나에게 세계를 볼 수 있는 열린 시각을 제공해 주었던 시간이었다. 이번 세계대회에 정대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기회를 허락한 한국Y에 가장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번 세계Y 회의에서 한국 Y는 다양한 부분으로 참가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를 떠올려보면 야외에서 모든 대표단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밤'이었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보여주는 다양성 캣워크(diversity catwalk)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나를 포함한 세 명의 한국젊은여성 대표가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catwalk stage에서 모델처럼 포즈를 취했고, 이어서 여기자로서 함성과 카메라 세례가 쏟아졌다. 세계 Y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한국과 일본Y가 공동으로 진행한 '평화호소' 북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인권 신장 결의안이 모든 각 국의 대표에 의해 통과된 것이다. 또한 우리 젊은 대표단이 진행한 'Empowering migrant women' 워크숍도 성황리에 마무리 지어 이때까지의 피곤이 한 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여성역량강화 운동과 여성권리신장 부분에 있어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표를 비전으로 한 이번 세계Y운동은 서로가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행동을 확인하여 세계 Y가 현존하는 목적과 세계 곳곳 여성과 소녀들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향상시켜 모든 사람이 평화와 건강 그리고 인간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의 정상 정복은 산의 밑바닥에서 출발해야 한다. 처음엔 너무 높은 정상에 아득하고 요원하기만 하여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 아무리 높은 산의 정상도 산행자의 의지를 이긴 적은 없다. 산을 오르는 일은 자기와의 싸움 과정이기도 하다. 높은 산을 오를 때 일수록 산행 순간순간마다 하산에의 유혹과 충동에 시달려야만 하지만 그 유혹과 충동을 이긴 자만이, 시간에 열정과 노고를 거듭 바친 자만이, 더딘 걸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정상으로 우리의 몸을 옮겨다 놓는다고 한다. 이번 YWCA세계대회는 내 삶의 의지를 다져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산행을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진행되는 회의들이 힘에 부쳐 너무 피곤했었던 적도 있었다. 지금 World council에 정대표로 참여한 젊은 여성으로서 일주일 동안 겪은 국제회의 경험들이 나를 산의 정상으로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스위스에서 만났던 각국의 세계YWCA 대표분들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스위스에 머문 일주일동안 자식처럼, 손주처럼 너무나 따뜻하게 챙겨주셨던 한국Y 대표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나는 이번에 경험한 소중한 기억과 의견들을 품고 내 앞에 펼쳐진 세계무대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 전 회장 수전 브래넨, 굼본즈반다 사무총장과 함께

# 2011년 세계대회 한국-일본YWCA 공동 결의문

평화로의 호소: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증진

Calling for PEACE: Strengthening North Korea Women and Children's Human Right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정치적, 군사적 긴장 속에 있다. 한국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당사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세계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마저 부족한 현실이다.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과 탈북자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식량, 의약품의 지원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평화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소녀들이 안전한 공간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적 관점과 인권보호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 세계YWCA에 북한의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1820, 1888, 그리고 1889 실행을 포함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평화로운 시기와 분쟁 중, 분쟁 후 모든 시기에서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여성 대표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주창한다.
3. 평화를 지지하기 위해 여성과 젊은 여성 그리고 소녀들을 결집하고 지원한다.
4.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 탈북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5.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한다.
6. 북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참여하고 지원을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전개한다.
7. 한반도 DMZ 방문단을 조직한다.

## 세계YWCA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증진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지

• 결의문 제안서 사전 제출 → 대회 중 결의문 워크숍 진행 → 제안 설명, 질의, 토의 → 투표로 채택

• 한국YWCA 제안 결의문에 대한 주요 쟁점과 토론 내용

**Q** 다른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어려움이 있고, 피해를 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있다. 결의문의 내용을 세계적 기아와 난민 구호의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가?

**A** 이러한 어려움이 북한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의 문제는 이와 구별되어 특별한 사안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이 한반도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같은 민족인 남한조차 인권을 위한 지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 외에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북한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결의문이 제시되어야 한다.

**Q** 일본과 공동으로 결의문을 제출한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

**A** 일본과 한국은 국가적으로 갈등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나, NGO로서 양국의 YWCA는 국가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책

임이 있다. 특히 양국 YWCA의 공통 관심 과제가 아시아의 평화 문제이므로, 북한여성과 어린이 지원 문제는 일본에서도 동참해 왔다.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운동의 연대가 YWCA의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한다.

**Q** 결의문 이행을 위한 세계Y와 지역단위, 각 국가 단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A** 국경지역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당하거나 어린이들이 매매되는 것은 관련 국가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세계적 인권 문제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세계Y 결의문으로 제출한 이유는 세계Y 운동 중점인 '젊은 여성의 인권증진'과 '여성의 Empowerment'가 가장 필요한 곳이 북한과 북한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변국가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Y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하고, 주변국에서는 이 탈북주민들의 난민 지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 나라 Y에서는 북한어린이를 돕는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 “편안한 잠” 흠침대 여름세일! “여자한테 참 좋은 침대”



|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br>CENTER FOR DEVICES AND RADIOLGICAL HEALTH   |  |
|---|--|
| 510(k)   Registration   Listing   Adverse Events   PMA   Classification   CDR<br>CFR Title 21   Advisory Committees   Assembly   MDR   Guidance   Standards |  |
| Device Listing Database   |  |
| Proprietary Device Name:  | SOORACK STONE BED                          |
| Common/Generic Device Name:   | SOORACK (THE COURSE OF A STREAM) STONE BED |
| Classification Name:  | PAD, HEATING, POWERED                      |
| Device Class:   | 2  |
| Product Code:   | 8RT  |
| Registration Number:  | 998,3742                                   |
| Medical Specialty:  | Physical Medicine                          |
| Device Operator:  | SOORACK STONE BED CO.                      |
| Device Operator Number:   | 980871                                     |
| Registered Establishment Name:  | SOORACK STONE BED CO.                      |
| Establishment Registration Number:  | 200420813                                  |
| Date of Listing:  | 12/02                                      |
| Listing Status:   | Active                                     |
| Establishment Operations:   | Manufacturer                               |

수맥돌침대 미국FDA인증서



늘 피곤한 분을 위해 수맥차단 사실을 증명하는 李京龍 대표

- 체험 1 타사보다 싸게 팔더라구요,  
대구 수성구 송정웅 총회장
- 체험 2 40년 동안 고생한 두통이 날개가 달린듯 사라지고  
서울시 사당동 서승자
- 체험 3 허리통증에 감기에는 돌침대가 말없는 의사!  
부산시 수영구 김영숙
- 체험 4 갑상선과 유방암에 면역력을 높여줘  
충남 청양군 김영미
- 체험 5 신세타령 하지 말고 불면증 관절염에  
전북 전주시 문순이

본사 : 1588-5335 명동성당 앞 / 잠실역: 1588-5335 제 2롯데월드 앞  
[www.smbed.co.kr](http://www.smbed.co.kr)



# hi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hi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암검진

국내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생애전환기인 만 40세, 만 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 및 건강위험 평가(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암 등)와 생활습관 평가, 의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제함수기



암검진  
제함수기

\*QR 코드를 이용해 건강검진  
제함수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밤산책



2011년 7월 장차현산 .

여름 밤 휴가를 맞아 집에 온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밤 산책을 나섰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인 이 나라에 사는 나이든 어머님을 걱정하여,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비싼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가 휠 며느리를 걱정하여...  
서로에 대한 걱정으로 고부간 섭섭함도 속상함도 오늘은 저 달 뒤에 숨었다.

# EM 흙공의 기적을 기대해봅시다

● 글 | 손은하 부산YWCA 간사




작년 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구제역... 그리고 그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가 또 한번의 사회적 이슈가 되던 때, 우리 부산YWCA를 비롯하여 15개 회원Y로 이루어진 동부지역YWCA가 하나가 되어, EM 흙공으로 살처분 가축 매몰지 주위 하천을 살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장소를 정하기 위해, 김해Y 서춘화 사무총장님과 부산Y 김혜경 사무총장님, 그리고 내가 답사팀이 되어, 각 동부지역YWCA의 중간지점이 되는 김해 추촌면 원지리의 매몰지 주위 어느 하천에 들어섰다.

처음에 매몰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도 주위에 매몰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아주 역한 악취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몰지 주위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사체가 부패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EM은 부패를 발효의 작용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악취 및 하천의 오염원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구제역 침출수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던 차에 EM 흙공을 오염된 하천에 던지면 물이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부지역 15개 회원Y가 15일마다 한번씩 돌아가며 같은 하천에 EM 흙공을 던지는 “EM으로 하천살리기 운동 캠페인” 릴레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가을 프로그램 진행 차,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EM의 발견자 히가 박사님을 만나 회원들과 함께 EM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히가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EM은 모든 사람과 환경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미생물이며, EM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반드시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사용하라고 했다.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다. 물론 히가 박사님이 말한 유용한 미생물 EM의 효능도 100% 믿지만,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 또한 깨달았다. 좋은 방법, 좋은 재료인 EM 흙공과 15곳의 동부지역 회원Y의 굳은 의지와 확신이 만난 EM 흙공던지기가 동부지역 Y에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으니, 김해 추촌면 원지리 매몰지 주위 하천은 분명 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마철이다. 여기저기서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는 기사와 함께 재입식을 고려해 보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이때, 동부지역 회원Y가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EM흙공이 침출수로 오염된 하천을 살려내고, 축산 위생환경이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 그 지역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좋은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여성단체가 나서야 할 때

• 글 | 권부남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장



5월에 발생했던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하지만 명문대로 알려진 학교의 학생들이 그것도 졸업 후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의대생들의 소행으로만 잠시 관심을 끌었을 뿐, 정작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화시키지 못하고 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고대의대생 동기 3명이 피해 여학생과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여학생이 자고 있는 사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해 여학생은 성추행 사실을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게다가 자신을 가해자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6월 한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피해학생이 먼저 술을 싸가지고 왔으며 자면서 배를 굶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추행을 유발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또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사과의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는 등의 말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글을 읽고 분노한 네티즌들은 가해자인 고대 의대생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청원서에서 명운동과 함께 고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부모의 재력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판 준

비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엘리트 특권의식 속에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학교 측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는 학교의 처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대처에서 어긋난 처사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국의 대학교에 양성평등센터나 상담실을 만들어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성희롱 방지법을 통해 법적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구라면 어느 학생이 피해를 신고하겠는가. 다시 한 번 고대뿐 아니라 각 대학교의 양성평등센터는 센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점검하고 재정립할 때이다. 또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학 측은 “우리학교 학생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이는 사건이 발생한 교육기관에서 흔히 보이는 태도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입시 때는 한사람이라도 더 입학

시킴을 위해 경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떠넘기기 식이거나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것은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을 배출해야 할 대학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대전Y 상담소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상담소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한다. 대부분의 학교 당국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보다는 밖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더욱 적극적이다. 학교 이미지에 전전긍긍하기 이전에 학생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의식을 보여주는 반응으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들과 함께 놀러간 것을 놓고 탓하는 시각이다. 그러나 6년을 함께 공부하며 신뢰했던 학우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70~80%가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이처럼 오랜 신뢰관계에서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많은데,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술을 먼저 사서, 먼저 자서, 옷을 올리고 자서'라는 등 피해자 유발론 성폭력은 언제쯤 사라질는지.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유발론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피해자라고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설령 말할 수 있어도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감내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이 성폭력 고소율 10%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남성우월주의에 젖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 내 징계처리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가해자들이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마치 특별한 면죄부를 주어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 학교 그

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과 그들의 창창한 앞날을 말하며 용서 운운 한다. 우리사회 명문대 특권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말들이다. 최소한의 인간윤리, 인간에 대한 예의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명문대의 껍데기가 무슨 소용인가. 지난번 우리지역에 집단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대처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범생이며, 성적이 우수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해자 싸안기에 급급했던 학교와 학부모들의 태도는 공부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한국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한 네티즌이 말했듯이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다. 아직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없는데도 '한 번의 실수'인데 라는 식의 사건 덮기는 성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덕 불감증 뿐 아니라 성폭력 불감증의 나라가 될까 두렵다.

이번 사건도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계기로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의무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회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학교의 수업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취직해야만 의무화된다. 취업 전인 대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인권 감수성이 길러지도록 하는 우리의 교육을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YWCA와 여성단체가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 가해 학생들이 단지 명문대 의대 학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고 이 땅의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얻어 이제는 말할 수 있도록 말이다. 

# 7월의 YWCA

|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
| <p><b>동해Y 실버스쿨</b></p> <p>광명Y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br/>대구Y 청소년쉼터무용치료(~18)<br/>사천Y 5기 돌보미 양성교육<br/>양산Y 여성주간행사<br/>녹색생활문화전시·체험관<br/>진주Y 어린이집 소방교육<br/>서귀포Y 집단상담프로그램 13기<br/>대전Y 회원참여의 날<br/>'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라'<br/>서울Y 명예위원회</p> <p>3</p>   | <p>김해Y 여성전문기능취득훈련 (네일아트2급자격증)개강<br/>대구Y 구인·구직이동상담실 운영<br/>부산Y 창립65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br/>진주Y 다문화도서관 '단비' 모임<br/>춘천Y 즐거운 노래교실<br/>광주Y 여성주간기념행사 -저출산극복을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br/>여수Y 여성풀뿌리지방자치학교<br/>청주Y 일과가정이양립되는세상만들기<br/>서울Y 직장여성리더십 오픈특강</p> <p>4</p> | <p>평택Y 기사도우미 교육 시작<br/>거제Y 사랑의 노인복지대학<br/>안동Y 녹색생활실천전문가교실<br/>양산Y 천연화장품만들기동아리<br/>동해Y 찾아가는 취업창구<br/>속초Y 청소년 씽크머니교육 방과후 교육<br/>원주Y 원주Y 어린이 합창단<br/>제주Y 여성주간기념토론회<br/>경주Y 사랑의 노인복지대학</p> <p>5</p> | <p>수원Y 결혼이주여성 'Good Mom Diary' 수원시티투어 초등경제교육<br/>안산Y 어린이 에코리더 환경교실<br/>대구Y 자활아카데미 청소년위원회, Y-틴 클럽활동<br/>부산Y 남북음식 나누기<br/>진주Y 어린이집 여름캠프(~14)<br/>강릉Y 회원대회<br/>속초Y 회원증모운동 최종평가회, 취약계층소비자교육<br/>목포Y 다문화 보육 임지면 가족한마당<br/>대전Y 청소년 진로탐색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자'<br/>서울Y 리필제품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p> <p>6</p> |
| <p>고양Y 문촌9복지관 능곡주민행복아카데미<br/>안산Y 결혼이민여성 소비자 교육<br/>평택Y 베이비시터 교육 시작<br/>거제Y 청소년금융교육 씽크머니 방과후학교<br/>김해Y 어린이·청소년부 위원회<br/>대구Y 내일배움카드제훈련 (한식조리기능사)개강<br/>부산Y 시니어강사단 교육<br/>안동Y EM생활제만들기교실<br/>남원Y 알성달성 성문화체험전(~15)<br/>목포Y 다문화 자녀 보육 흑산도 수업<br/>청주Y 청주Y 46주년 기념예배 및 회원증모운동 시상식<br/>서울Y 서울Y 역대이사모임</p> <p>10</p> | <p>수원Y 회원증모운동 2차보고회, 안전한 밥상, 건강한 먹거리 특강<br/>의정부Y 지구시민교실<br/>대구Y 구인·구직이동상담실 운영, Y-틴 클럽활동<br/>진해Y 2011 살림의 여왕 OT<br/>동해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br/>속초Y 어린이교통안전교육<br/>서울Y 직장 여성리더십강좌수료식</p> <p>11</p>   | <p>수원Y 회원증모운동 2차보고회, 안전한 밥상, 건강한 먹거리 특강<br/>의정부Y 지구시민교실<br/>대구Y 구인·구직이동상담실 운영, Y-틴 클럽활동<br/>진해Y 2011 살림의 여왕 OT<br/>동해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br/>속초Y 어린이교통안전교육<br/>서울Y 직장 여성리더십강좌수료식</p> <p>12</p>         | <p>안산Y 결혼이주여성 취업능력향상교육<br/>파주Y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휴공만들기"<br/>광주Y 제7회 청소년유림국제캠프(~30)<br/>서울Y 직거래장터, 강남 위기청소년 캠프코리아 봉사활동</p> <p>13</p>  |
| <p>안산Y 결혼이민여성 취업능력향상교육<br/>파주Y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휴공만들기"<br/>광주Y 제7회 청소년유림국제캠프(~30)<br/>서울Y 직거래장터, 강남 위기청소년 캠프코리아 봉사활동</p> <p>17</p>   | <p>대구Y 구인·구직상담실 운영<br/>부산Y 제7차 청소년 해외봉사캠프 캄보디아 씨엠립(~27)<br/>동해Y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실<br/>속초Y 어린이 재난 대비 안전교육<br/>대전Y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17주년 기념예배<br/>서울Y 청소년 진로찾기</p> <p>18</p>  | <p>대구Y 구인·구직상담실 운영<br/>부산Y 제7차 청소년 해외봉사캠프 캄보디아 씨엠립(~27)<br/>동해Y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실<br/>속초Y 어린이 재난 대비 안전교육<br/>대전Y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17주년 기념예배<br/>서울Y 청소년 진로찾기</p> <p>19</p>                                | <p>수원Y 알음알음 나눔장터<br/>안양Y 청소년 자원봉사학교(~21), 실무자 소풍,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발족식</p> <p>20</p>  |
| <p>의정부Y 구직회원 재교육 및 월례회의, 청소년여름자원봉사학교개강(~29)<br/>부산Y 새터민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겨레 계절학교<br/>창원Y 방학특강</p> <p>24</p>  | <p>대구Y 달서구 청소년쉼터 사례관리회의 초록학교(~29)<br/>마산Y 도심하천살리기 EM휴공 던지기<br/>원주Y 산모돌보미 보수교육<br/>여수Y 여성풀뿌리지방자치학교 토론회<br/>익산Y EM 활성액만들기<br/>대전Y 마음이 쑥쑥 독서놀이터</p> <p>25</p>  | <p>대구Y 달서구 청소년쉼터 사례관리회의 초록학교(~29)<br/>마산Y 도심하천살리기 EM휴공 던지기<br/>원주Y 산모돌보미 보수교육<br/>여수Y 여성풀뿌리지방자치학교 토론회<br/>익산Y EM 활성액만들기<br/>대전Y 마음이 쑥쑥 독서놀이터</p> <p>26</p>                                      | <p>고양Y 청소년양성평등교육<br/>부천Y 학교급식축산물가공장 위생점검<br/>안양Y 씽크머니 학부모 금융교실<br/>대구Y 교도소 선교, 청소년인성개발캠프<br/>순천Y 제16회 청소년농촌봉사활동캠프(~29)</p> <p>27</p>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연합회·회원** 월례아침기도회  
**고양** 한부모 일, 가정 양립지원사업  
**수원** 결혼이민여성 생활문화체험  
**의정부**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평택** 우쿨렐레 기초·심화반 강습  
**김해** 여성전문가비취특훈련 (역사논술지도사) 개강  
**진해** 아금바리꾼과 함께하는 리폼공부  
**대전** 씬터 집단상담 개강  
**천안**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산모도우미 무료교육

1

**의정부** Y-틴 녹색성장교육  
**대구** Y-틴 클럽활동  
**사천** 갯벌체험  
**진해** 행복하DAY 여성주간 행사  
**창원** 애중마축제  
**광주** 어린이 초록데이  
**여수** Y틴 봉사활동  
**전주** 청소년이동상담  
**제주** 역할극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  
**서울** 여성능력개발부 동아리 MT

2

**남양주** 창립15주년 기념예배  
**안산** 씬크머니 학교특강  
**김해** 2011년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페스티벌  
**마산** 일동후디스와 함께하는 예비맘 클래스  
**양산** 다문화 한국문화생활체험  
**동해** 에코리더 양성교육  
**속초** 다문화이해교실(즐거운노래교실)  
**제주**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대전** 제16회 대전여성포럼

7

**남양주** 창립기념일  
**안산** 장애청소년 한마음 가요제  
**사천** 사천시 여성주간행사-EM판매  
**속초** 취창업 수선교실  
**광주** 조아라선생 8주차 추모예배  
**제주** 제주지역청소년정책토론회

8

**고양**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봉사단  
**수원** 주말버스프로그램(부천아인스월드)  
**의정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수료식  
**대구** 달서나눔장터  
**부산** 어린이 환경기자단-갯벌탐사  
**진주** 한일Y틴사절단 일본요리교실  
**원주** 청소년 문화존 끼의난장 만화축제  
**인천**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서귀포** 가족문화만들기 프로그램-유리공예만들기  
**안양** 다자녀 가정과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9

**고양** 회원증도 3차 거리캠페인  
**대구** 결혼이민여성 피부미용마사지서비스 활동  
**사천** 청소년 아카데미  
**전주** 찾아가는 부모교육  
**천안** 키자니아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청주** 여름직원연수(~16)  
**서울** 가락 지역주민 살리미 공개강좌

14

**의정부** 유해환경제도  
**대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친환경 경기관람캠페인  
**안동** WHO 건강도시가이팅기념행사  
**진주** 에너지절약캠페인, 하천살리기 환경캠페인  
**동해** 찾아가는 해피살머드림  
**서귀포** 직업훈련프로그램수료식  
**대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수료식

15

**진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인천** 청소년 문화존  
**서귀포** 건전놀이대회-청소년 인터넷게임대회  
**천안** 참사랑천안YWCA간병원례회

16

**대구**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17주년 기념예배  
**천안** 고령자인재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주** Y틴 중부지역 회원대회  
**서울** 노년 취업창업 기획강좌

21

**부산** 좋은 화장실 문화만들기 캠페인  
**안동** 친환경생활제만들기교육  
**원주** 체험환경학습'별 헤는 밤'(~23)  
**서울** Y-컴퓨터즈 온라인겨레 적정화를 위한 캠페인

22

**안산** 엄마와 함께 하는 친환경 요리실습, 신나는 교과서 밖 과학여행-갯벌체험 결혼이민여성자주모임"무지개"  
**대구** 청소년 문화존  
**마산** 청소년 문화존  
**사천** 어린이 전기과학 교실  
**목포** 청소년 댄스 예심  
**제주** 민주시민교육  
**청주** 아나바다 거리장터, 어린이 생태학교  
**충주** 유소년 문화체험  
**서울** 북부지역 Y-틴 회원대회 '청소년이여 날개를 펼쳐라', 강남 세계문화체험카페

23

**대구** 결혼이민여성 피부미용마사지 서비스활동, 달서구 청소년쉼터 여름캠프(~29)  
**창원** 바이올린음악캠프(~30)  
**광양** 가정폭력 자원활동가 교육  
**서귀포** 서귀포YWCA회관 개관식  
**제주** 민들레학교 단기 여름캠프(~29)

28

**안산** 다문화가정 그린에너지 캠프  
**의정부** 6차 아이돌보미 및 보수교육 수료식  
**사천**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  
**원주** 살림돌보미 보수교육  
**천안** 씬크머니 실무협의회

29

**마산** 애니어그램 2단계 교육  
**남원** Y-틴 동아리 '시간탐험대'  
**서귀포** 더위사랑 빙수만들기 대회

30

# 8월의 YWCA

|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
|  | <p>부산Y 활기찬 직장생활만들기- 직장인심성수련캠프(~3)</p> <p>남원Y Y-틴동아리 '시간탐험대'</p> <p>안동Y 다문화 자조모임</p> <p>창원Y 산모돌보미 양성교육(~12)</p> <p>제주Y '취업희망' 프로그램 개강</p>                      | <p>고양Y 청소년지역사랑봉사대</p> <p>안산Y 다문화일촌여행캠프(~3)</p> <p>창원Y 산모돌보미 양성교육(~12)</p> <p>대전Y 가정폭력 피해자 자조모임</p>  | <p>대구Y EM 흠공 던지기</p> <p>서울Y 강남 청소년 해양캠프(~5)</p>   |
|  | 1   | 2   | 3   |
| <p>인천Y 몽골 '인천희망의숲' 청소년 식림 봉사 활동(~11)</p> | <p>평택Y 또래친구 만들기, 꿈향 캠프</p> <p>대구Y 장애학급 경제교육(서부공업고)</p> <p>부산Y 전직원 연수(~9)</p> <p>목포Y 인문학-동일보감 개강</p> <p>서울Y 성동 여름방학 자원봉사학교(~19)</p> <p>제주Y '새일찾기준비프로그램' 개강</p> | <p>거제Y 청소년금융교육 생크머니 방과후학교</p> <p>김해Y 여성전문기능취득(영어교육예술사)개강</p> <p>진주Y 난쟁지역아동센터 도예체험</p> <p>청주Y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생크머니 경제캠프</p> <p>서울Y 성동 배움&amp;나눔 캠프(~11)</p> | <p>수원Y 결혼이주여성 'Good Mom Diary' 영양간식만들기</p> <p>남원Y 신나는공부방 야외현장학습</p>   |
|  | 7   | 8   | 9   |
|  |   |   | 10  |
|  |   | <p>부산Y 어린이농촌체험캠프 3차 여름날이, 가을맞이</p> <p>대전Y 해외자원봉사 '젊음, 열정으로 복원하는 세계문화유산'</p> <p>서울Y 성동 난장판 전통문화캠프(~18)</p> <p>남원Y 살림·산모도우미 만들레 모임</p>                    | <p>수원Y 알음알음 나눔장터</p> <p>김해Y 아이들을 위한 자연생태만들기체험 특강</p> <p>진주Y 에너지의날기념 소등행사</p> <p>목포Y 지역아동센터 여름캠프</p> <p>천안Y 회원증모 2차 보고대회</p> <p>서울Y 가락 행복한 나눔가게 문화활동</p> |
|  | 14  | 15  | 16  |
|  |   |   | 17  |
|  | <p>안산Y 어린이 별자리 캠프(~23)</p> <p>제주Y 취업희망프로그램 개강</p> <p>청주Y 이사여름연수(~24)</p> <p>대전Y 심터 미술치료 개강</p>  | <p>진주Y 난쟁지역아동센터 임벽등반</p>  | <p>김해Y 상반기 대학탐방 청소년비전트립</p> <p>포항Y 소망의집 여가프로그램-퀵트</p> <p>서울Y 서울시 평생교육 시니어리더십 개발과정 개강</p>  |
|  | 21  | 22  | 23  |
|  |   |   | 24  |
|  | <p>한·일YWCA 청소년 협의회(~9/13)<br/>의정부Y 구직회원 재교육 및 월례회의</p>  | <p>마산Y 도심하천 살리기 EM흠공 던지기</p> <p>서울Y 결혼이주여성 취업대비 자조모임 개강</p>   | <p>안동Y 사랑나누기 바자회(~9/2)</p>  |
|  | 28  | 29  | 30  |
|  |   |   | 31  |

목요일

안산Y 나우리 어울림 캠프(~6)  
광주Y 2011청소년여름캠프(~5)

4

금요일



5

토요일

남원Y Y-틴동아리 '시간탐험대'

6

서부지역 Y-틴 회원대회(~12)  
안산Y 경기도문화의집협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캠프  
순천Y 2011 서부지역Y-틴 회원대회(~12)  
전주Y 서부지역Y-틴 회원대회(~12)  
대전Y 청소년 리더십캠프 'POWER UP'

11

의정부Y 유해환경계도  
거제Y 어린이금융교육캠프(서울)  
진주Y 여름캠프-경주세계엑스포(~13)  
진해Y 한부모자녀캠프 '꿈이 있는 교실'  
동해Y 한국어교육 실시  
제주Y 민주시민교육 '공동체야 놀자'

12

수원Y 초등놀이프로그램  
대구Y 청소년민들레, 달서나눔장터 EM홍보 및 판매  
진해Y 한부모자녀캠프 '꿈이있는 교실'  
통영Y EM 휴공단지기  
원주Y 청소년문화존 끼의 난장 '한여름밤  
영화가 있는 콘서트'  
서귀포Y 예쁜손글씨 POP교실  
대전Y 심터 문화체험  
서울Y 강남 세계문화체험카페, Y-틴 극단마루 공연  
충주Y 유소년 문화체험

13

안산Y 어린이 친환경 농촌캠프  
전주Y 중학생 학습향상을 위한 클리닉(~19)  
천안Y NGO여성활동가들의 영그린(YOUNG  
GREEN)클럽(~20)

18

동부지역 Y-틴 회원대회(~20)  
서울Y 성동 청소년탐방단 런닝맨 외부체험활동

19

의정부Y Y-틴 녹색성장교육  
포항Y 소망의집 가족회의  
서귀포Y 가족캠프(~21)  
서울Y Y-틴 SCENE 연극공연, 대학Y 협의회

20

의정부Y 유해환경계도  
제주Y 민주시민교육 '포용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

25

26

수원Y 초등놀이프로그램  
마산Y 청소년 문화존  
통영Y EM 휴공 단지기  
광주Y 전직원 연수  
청주Y 어린이 생태학교  
서울Y 강남 세계문화체험카페

27



### 한국YWCA 대표단 2011 YWCA세계대회 참가



강교자 한국YWCA 회장,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포함 18명의 한국YWCA 대표단이 2011 YWCA세계대회에 참가하였다. 120여 개국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여성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7월 10일~16일까지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 p.26~31 참조)

### 7월 YWCA월례아침기도회

7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가 오전7시 반부터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장윤재 목사가 ‘청년정의’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YWCA 20대 회원·실무자들의 특송이 있었다. 전국 43개 회원YWCA가 함께한 기도회를 통해 YWCA를 영적으로 깨우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 p. 15 참조)

### 2011 YWCA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 전개

2010년에 이어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6월 실행위원

회를 통해 평안남도 안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2톤의 분유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차 모금을 8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 제4차 YWCA 정의포럼 : 청년정의운동



지난 6월 30일 연합회 강당에서 회원

YWCA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의포럼이 열렸다. ‘청년정의·청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청년정의운동을 다룬 이번 포럼에서는 김기동 연합회 청년운동팀 위원이 ‘청년예수운동과 YWCA운동’을, 최윤진 중대 청소년학과 교수가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청소년 정의운동’을, 이어 박유라 YWCA 인터넷 방송국 1기 아나운서가 ‘20대가 말하는 청년 정의운동’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청년성의 회복과 존중을 위한 노력들을 공유하며 YWCA에서 펼쳐나갈 청년정의운동 영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 p. 16~17 참조)

## YWCA 정의운동가 워크숍



YWCA는 6월 8일(수)~9일(목) 1박2일간 YWCA 버들캠핑장에서 정의운동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생명·평화·청년 관련 연합회 및 회원Y 실무자, 관련위원장, 위원 등 총60여 명이 참여하여 한국Y 정의운동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정의운동 방향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의 'Y정의운동에 거는 기대',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의 '운동가되기 세상바꾸기' 강의가 있었고,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YWCA 운동의 가치와 방식'에 대한 제안과 생명, 평화, 청년정의 영역별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 제2차 전국 사무총장협의회 개최



제2차 전국 사무총장협의회가 6월21일~23일까지 2박 3일간 YWCA버들캠핑장에서 진행되었다. 회원Y 사무총장 47명, 연합회 실무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YWCA 현안 과제 선정, 과제 이행 방법을 토론했고 제안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 김필레 선생 추모 예배 설교



7월 7일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김마리아 회관에서 故김필레 선생님의 제28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동창들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를 창립하고 정신학원을 재건하는 등 기독교성교육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신 김필레 선생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교자 한국YWCA 회장이 '그 결심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YWCA 출산예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예정 다문화가정을 YWCA가 지원한다. 출산예정 다문화가정의 산모 총 14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출산비 지원은 최대 150만원, 산모-신생아돌보미서비스는 2주간 지원한다. 돌봄 서비스에 체계적인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YWCA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산후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차 공모와 지원이 있었으며, 2차 공모기간은 7월 27일 까지이다.

## YWCA-유한김벌리 생명육아 교실 사업 종료

YWCA연합회는 유한김벌리의 후원으로 핵가족화와 지역주민의 단절로 인한 육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품앗이 육아공동체 사업, '2011 지역주민과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품앗이공동육아'를 수행했다. 서울Y 가락 종합사회복지관과 광명Y에서 수행한 이번 사업은 2006년부터 수행해 온 '생명육아교실'사업의 일환으로써 '품앗이 공동육아' 모델 개발을 위해 서울Y 가락종합사회복지관 34가족과 광명Y 20가족이 참여했다. 또한 김정희 이대 한국여성연구원은 이 사업 분석을 통해 품앗이 육아공동체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YWBS 인터넷 방송국 2기 출범

7월 1일부터 YWBS인터넷 방송국 2기 아나운서들의 방송이 시작되었다. 다섯 명의 2기 아나운서들의 요일별 1인 방송체제로, 12월 31일까지 YWBS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나간다. 2기 방송은 'YWCA정의'를 주제로 월~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방송된다. [www.afreeca.com/ywca1](http://www.afreeca.com/ywca1)에서 YWCA방송을 볼 수 있다.

### 동정



- 부천Y 최은희 사무총장이 6월30일로 정년퇴임하고, 임행심 사무총장이 7월1일로 취임했다.
-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이 세계YWCA 이사에 당선되었다.

## 고양 YWCA

●이혜경 간사

### ‘멘토 앤 멘티 마주보기’ 종강식

고양Y는 6월 11일 사랑 더하기 나눔은 희망- 멘토 앤 멘티 마주보기 종강식이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외환은행 직원이 함께 하는 1:1의 멘토 멘티 프로그램으로 2010년 9월 결연식을 시작으로 올 6월까지 진행되었다.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영상을 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실무지역량강화 워크숍

6월 17일에서 18일까지 실무지역량강화워크숍이 파주 흥원연수원에 있었다. 영성훈련, SNS교육, 팀빌딩교육을 통해 YWCA운동방향을 공유하고 직원 간 지역주민 간의 소통역량을 향상시키는 시간이었다.

- 6월 9일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자기혁신프로젝트 '교류분석'
- 6월 13일 초등학교급식 G마크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시
- 6월 23일 2차 회원증모운동 거리캠페인
- 6월 24일 직원금융저녁기도회

## 남양주 YWCA

●임은희 간사

### 창립15주년 기념행사

남양주 Y는 창립15주년 기념 '사랑 더하기'라는 주제로 회원 전시회 및 음악회, 일일 바자회를 남양주시 아트센터에서 진행하였다. 회원 작품 전시회도 가졌는데 초대회장의 서양화부터 퀼트 등 전문가 수준의 작품을 전시가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은 남양주시 부시장, 시의원, YWCA이사, 위원들을 모시고 퍼포먼스와 음악회 및 일일차집을 마련하였다. 15주년이라는 뜻 깊은 행사를 통하여 이사, 위원들의 단합과 지역사회에서 YWCA의 위상을 높였다.

- 6월 7일 (매주화요일) 조손가정 반찬나누기
- 6월 15일 아나바다 나눔장터
- 6월 28일 백합월례회

## 부천 YWCA

●김해경 간사

### 다문화가정합동결혼식

부천Y는 6월4일 토요일 오후3시에 부천제일감리교회 아가페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일곱 쌍이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하객들이 격려와 축하를 해주었다. 부천Y 이사님들이 친정 어머니가 되어 폐백 때 큰절을 받고 밤과 대추를 던져주며 다산을 기원 하였다. 한국Y 강교자 회장님도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오셔서 신랑신부들에게 희망찬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후속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탐방과 결혼이민자초청의 밤 등이 있을 예정이다.

### 부천Y 사무총장 이·취임식

부천Y사무총장 이·취임식이 6월 30일에 있었다. 5년 간 부천Y를 이끈 최은희 전 사무총장이 정년퇴임하였고 임행심 사무총장이 취임하였다. 회원과 부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지역교회 성도들이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최은희 총장의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보면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임행심 사무총장을 맞이하였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네가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두 분 모두 꽃자리에 앉은 마음으로 희망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소망한다.

수원 YWCA

●이민정 간사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무한행복속으로 Go!**

수원Y는 6월 25일~26일 양평 쉼빌 호텔에서 자녀와 함께 부부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수원, 오산, 안양 등 경기도 남부권역 국제결혼 부부 스물세 쌍이 참가하여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이해, 부부비전 세우기, 국제관계법률, 세미나 관람을 통해 부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생활텃밭안내자 교육**

6월 24일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텃밭 안내자 교육이 있었다. 텃밭에 관한 이론교육과 그로우백(growbag)을 이용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었다. 이 교육으로 그로우백과 작물모종을 보급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3회 교육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 6월 14일 회원증모운동1차보고회
- 6월 30일 인문학강좌, 하천지도자양성교육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월드맘 영어교실’ 사회적 기업 인증**

안산Y ‘월드맘 영어교실’은 지난 2009년 3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2010년 7월 ‘월드맘 영어교실’을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대상 영어강사 파견 및 어린이영어교재 개발 사업을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였다. 올해 4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 6월 11일 안산주말버스학교-암사동선사주거지 탐사
- 6월 30일 회원한미음대회

안양 YWCA

●이하나 간사

**안양Y 회원대회 개최**

안양Y는 6월28일 안양 롯데시네마에서 회원대회를 개최하였다. 130명 회원과 함께 여는 예배를 드리고 25주년 비전동영상 시청과 양혜영 회원조직운영위원장의 회원증모운동 보고 후 Y역사알기, 회원활동, 환경실천 등을 주제로 한 도전 골든벨과 다채로운 회원한마당이 펼쳐졌다. 이후 다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EM운동 실천을 위해 EM선물을 제공했다.

- 6월 20일 실무자 EM활용 심화교육 진행
- 6월 21~22일 이사연수
- 6월 29일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한 시민 워크숍

의정부 YWCA

●윤소영 간사

**취업을 위한 집단상담 및 바리스타 교육**

의정부Y는 6월 20일~24일 총 5일간 집단상담프로그램(자기이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을 위한 직장생활 에티켓, 성공하는 면접 준비 등)과 바리스타 교육(커피의 역사 바로알기, 커피로스팅과정, 핸드드립 및 바리스타 제반 기술, 커피이론 및 카페 메뉴이해, 필승! 카페창업 노하우 등)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근지역 카페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주민 및 고령자 25명이 참가하였다.

파주 YWCA

●이정심 간사

**파주YWCA 어머니인형극단 공연**

파주Y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공부방 자모를 주축으로, 어머니 인형극단을 조직하였다. 이 극단에서는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금연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 6월 23일-25일 3일간 파주시 금신초등학교에서 총9회 공연을 하였고 630명(1-4학년)의 아동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양성평등문제를 인형극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 평택 YWCA

●남예슬 간사

###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평택Y는 6월 15일 평택 중앙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700여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아침식탁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아침식탁 캠페인은 이사, 실무자, 학부모,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떡과 음료를 나눠 주며 아침식사를 꼭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 6월 13~18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류바자회

## 동부 지역

## 거제 YWCA

●옥정미 간사

### 어르신 소비자 교육 사업단 상황극 공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어르신소비자교육사업단은 6월 14일 새장승포교회 노인대학 어르신 100여명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황극

을 연출하여 보여드렸다. 이 상황극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유형 및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EM환경살림이아카데미-버들치와 함께 스마일

거제Y는 6월 17일 'EM환경살림이 아카데미-버들치와 함께 스마일사업'의 일환으로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어린이 72명과 함께 EM환경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이번 EM환경살림이 아카데미는 경상남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EM환경교육을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체험으로 자연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 6월 1일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
- 6월 17일 일반 여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
- 6월 25일 거제YWCA청소년오케스트라 6.25 참전용사를 위한 음악회

## 경주 YWCA

●김효영 간사

###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경주Y는 6월9일 2011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연합회 강교자 회장의 YWCA회원의 사명과 증모운동 강의로 이사·위원·회원들이 회원증모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결의를 다졌다.

- 6월 18일 포항청소년합창제 소년소녀합창단 출연
- 6월 21일 경로행복대학 수지침 특강

## 김해 YWCA

●배정숙 간사

### 창립 20주년&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12주년 기념행사

6월 15일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김해YWCA 창립 20주년 및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1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YWCA 차경애 부회장과 부산, 진주, 창원YWCA 회장 및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이날 20년 우미선 김해시의원이 봉사상을, 옥영숙 김해시의원, 이춘열, 배계순 증경회장, 전정자 이사, 서춘화 사무총장이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년의 역사를 되돌

아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고 김해Y가 정의·평화·창조질서의 그 목적아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대한다.

### 여성친화기업 협약 체결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6월 10일 유관기관 관계자 및 기업체 대표를 모시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여성친화기업 체결을 통해 여성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에게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다문화가정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6월 3일 '다문화가정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개강하였다. 8월 29일 월요일까지 3개월 간 진행될 계획이다. 매주 월, 금 오전10시~12시 주2회이며 대상은 결혼이주여성, 교육비는 무료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며 다문화교육의 확산과 정착으로, 다르지만 평등한 인간으로서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열린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대구 YWCA

● 김세형 간사

### 독거 어르신 사랑, 모시한복 나눔

대구Y는 6월 28일 '모시한복에 깃든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달서구청 행복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모시한복을 달서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열다섯 분께 전달하였다. 홈패션리폼사업단 참여자 15명이 제작한 모시한복(개량한복)을 전달함으로써 독거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였고 참여자들은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다. 광대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내 주었다.

### 달서구 청소년 쉼터 심야아웃리치

쉼터에서는 학생들이 밀집해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심야아웃리치를 실시하였다. 가출, 학교자퇴, 폭력, 성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가 청소년들의 갈등과 고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상담을 통하여 가출청소년들의 구제와 쉼터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 2011 돌봄과 살림 강사워크숍

6월 14일~ 15일 Y동부지역아카데미 돌봄과 살림 강사워크숍이 대구YWCA에서 있었다. 동부지역 돌봄과 살림 강사 40여명의 모여 돌봄과 살림 이해, 돌보미의 역할이해, 일과 여성 그리고 돌봄노동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YWCA 강사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 마산 YWCA

● 이애라 간사

### 제4회 다문화가족통합 어울림 나눔교실

마산Y는 6월 28일 마산Y 대강당에서 제4회 다문화가족통합 어울림 나눔교실을 진행했다. 단순히 현물과 현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생태체험, 아로마 소핑몰 체험 등 전시 체험부스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6월 1일 정부양곡미 배달 담당 신규자활근로사업단 '스마일택배사업단' 출범

## 부산 YWCA

● 여진경 간사

### 회원모집운동 발대식

부산Y는 6월 2일 부산Y 예비사회적기업 브라스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회원모집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부산Y 홍보 리플릿 배부와 각 지부의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시민에게 부산Y를 알리는 장이 되었다.

### 좋은 화장실 문화만들기를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

6월 3일~23일 부산시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16곳에서 어린이 1200여명을 대상으로 좋은 화장실 문화 만들기를 위한 어린이 교육을 실시했다. 푸름이 강사단을 통해 동영상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

- 6월 1일~3일 2박3일 남북여성이 함께 하는 동거동락 캠프
- 6월 11일~12일 어린이 농촌 체험캠프 2차 여름맞이

## 사천 YWCA

●정정자 간사

### 어르신 소비자 교육

사천Y 삼천포 노인대학에서 6월 22일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보 및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자주적 해결 능력을 함양시키고 올바른 소비 능력 고양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 6월 9일 EM 휴공 던지기

##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 그린스타트 - Happy Green Life

#### “녹색생활실천 전문가 양성”

안동Y는 6월 27일 ~ 7월 7일 '녹색생활 실천 전문가 교실'을 운영하였다. 안동대 생명자원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EM의 효과에 대해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법을 배워 가정에서 작은 텃밭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친환경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환경을 지키는데 작은 실천들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 다문화 여성 한국음식 체험

6월 20일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전통요리 연구원을 초빙하여 전통음식인 안동식혜 및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배워 실습해보고 시식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체험으로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 양산 YWCA

●이은주 간사

### 환경사랑 EM 실천 행사

6월 16일 양산시 지역주민과 녹색생명지기, 황산초등학교 220여명의 학생들이 환경사랑 실천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대도시 공업지역으로 변해가는 우리 고장의 하천을 살리고

자 황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EM 환경교육 실시하였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보전실천 생활습관을 심어주어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 6월 23일 어린이합창단 양산부산대어린이병동 공연
- 6월 24일 여성정책제안을 위한 나의 주장 발표회  
“여성들의 이야기 터”

## 울산 YWCA

●김선양 간사

### Y-틴 인준식

5월 28일 Y-틴 미디어 봉사단 “암니옴니”가 정식 동아리로 인준을 받았다. 회장 서소연, 부회장 심송희 회원 외 12명의 Y틴 회원과 청소년□대학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Y틴 회원의 상징인 뺏지 전달과, 임명장 수여 그리고 1년간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Y-틴 미디어 교육

‘인터넷 에티켓 지키기’를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Y-틴 암니옴니는 MBC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영상촬영기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멋진 영상물을 기대한다.

##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 ‘제16회 환경의 날’ 기념 EM 환경 캠페인

6월 3일 진주시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제16회 환경의 날’ 기념 EM)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EM을 적극 사용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진주시민이 참여 하였으며 EM원액 배부, 환경퀴즈 응모, EM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 다문화노래자랑

6월 4일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리랑TV와 진주서경방송과 공동으로 ‘다문화노래자랑’을 진행하였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민들이 함께 노래경연을 하였다. 이색적인 리폼의상과 노래, 춤의 향연을 보여준 필리핀 이주여성팀이 대상, 태국전통춤과 한국의 가요를 함께 멋들어지게 소화한 태국의 이주여성이 금상을 수상하였다.

**창원 YWCA** ● 황은진 간사

**다문화가족 통합어울림나눔교실 행사**

창원Y는 6월 28일 다문화가족통합어울림나눔교실 '아네모네' 행사가 있었다. 창단 3년을 맞은 하나울림다문화여성합창단 초청공연도 가졌다. 우리지역에서 다문화여성합창단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 모여 합창으로 끼와 재능을 발휘하며, 함께하는 즐거움,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하나된 목소리로 전했다.

- 6월 24일 창원YWCA 23주년 기념예배

**통영 YWCA** ● 임정순 부장

**통영시민을 위한 인문학**

통영Y와 통영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후원사업인 생생공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월13일 "통영 인문학에 눈을 뜨다"를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다. 이번 인문학강의는 총 13강으로 이루어져 환경, 심리, 철학, 경제학, 법학, 영화감상, 하동 박경리문학관 체험 등 다양한 인문학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각자에게 부여된 저마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한다.

**다문화가정 민들레누비 '희망 START!'**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이 후원하는 민들레누비 '희망 START!'를 시작하였다. 2011년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 직업 지원 사업으로서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역특화사업인 통영전통누비기술을 익히게 하여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며,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 EM 홍보활동

**포항 YWCA** ● 김윤미 부장

**다문화가정 출산지원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의류 대 바자회**

포항Y는 6월 13일 ~17일까지 YWCA 강당에서 다문화 여성의 출산 지원을 돕기 위하여 의류 대 바자회를 실시하였다.

- 6월 9일~10일 소망의 집 피해자 심신회복캠프
- 6월 18일 가족상담센터 제 2회 '웃음가득, 행복가득 가족사진 콘테스트' 시상식



**강릉 YWCA** ● 전정미 간사

**제23회 회원대회**

강릉Y는 7월 13일 실내체육관에서 23회 회원대회를 열었다. 강릉Y 회원 200명이 참석하여 1부 예배, 2부는 '함께해요'라는 체험코너, 3

부는 레크레이션으로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Y 회원운동결과 보고와 체험코너에 리본공예/핸드폰고리, 환경수세미, 천연비누, 대안생리대 만들기 등으로 YWCA정체성과 생명사랑공동체 운동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회원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한마당축제가 되었다.

### 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6월 23일 강릉Y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이 있었다. 1부 '감사하는 삶'의 주제로 운영태 목사의 말씀이 있었고, 2부는 최명희 강릉시장, 김영기시의장 및 많은 내빈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진행되었다. 출산과 육아부담,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 취업설계 및 알선, 가사 및 자녀양육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6월 4일 Y-틴 환경교육
- 6월 20일~7월 22일 의류수선사 양성교육

### 동해 YWCA

● 송원진 간사

### 가족체험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두 번째 이야기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하는 엄마와 함께 하는 가족 체험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 센터를 통해 취업한 인턴 및 취업여성, 동해시에 거주하는 일반취업여성 및 구직 여성과 초등학교 자녀 총 30명(15가족)이 참여하였다.

- 6월 15일 찾아가는 취업창구
- 6월 17일, 23일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 6월 17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 서울 YWCA

● 박서영 간사

### 2011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6월 18일 서울Y에서는 유한캠벌리와 함께 '2011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개최하였다. 생명의 싹을 지닌 신혼부부들에게 행복한 부모

되기를 도와주고, 건강한 부부대화법도 안내해주는 신혼부부학교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집단 중심극인 소시오드라마와 부부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초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는 준비를 도와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강사는 소시오드라마 전문가인 김영한 별자리심리연구소장과 가족상담 전문가인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장이었다.

- 6월 4일 서울YWCA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루BOX '해설이 있는 뮤지컬'
- 6월 22일 서울시 여성정책 모니터단 UP&IN 교육

### 속초 YWCA

● 김현희 간사

### 지역사회네트워크 연결

속초Y는 6월8일 자원봉사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의 유대관계 형성 및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평창허브농원, 대관령양떼목장으로 즐거운 소풍을 다녀왔다.

### 학교폭력예방교육

속초Y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7월 말까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대상이며, 전문 강사가 폭력문화에 노출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6월 7일 다솜아동센터 악물오남용 예방교육
- 6월22일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자조모임

### 원주 YWCA

● 김혜선 간사

### 원주 YWCA 어린이 합창단 찬조출연

6월 11일 청소년 문화존 Rock&樂 페스티벌에서 원주 YWCA 어린이 합창단이 찬조출연을 하였다. 무더운 날씨로 지쳐있던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피꼬리처럼 울려 퍼지는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다시 한 번 힘을 내 응원하는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 6월 11일 청소년 푸름 쉼터에서 문화존 Rock&樂 페스티벌

- 6월 17일 학부모 금융교실

**인천 YWCA**

● 김주희 간사

**연변-인천 여성 평화공동체 네트워크**

인천Y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장정희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자원지도자와 실무지도자가 연변을 방문하여 연변 여성단체인 연변민들레 문화교류협회 및 연변 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인 연변-인천 여성 평화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연변 여성단체를 통한 북한 여성, 어린이 지원활동 연계, 인권보호 및 향상, 재중동포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성에 그 목적이 있다. 인천Y는 지난 2005년 연변 여성단체인 연변 민들레 문화교류협회와 연변, 북한 어린이 돕기 3차 교류 협약을 맺고 2006년 2007년 연변을 방문 기금을 전달 한 바 있다. 이번은 3차 교류회로 기금 및 의약품(인천약사회 지원) 도서, 교육용 DVD등을 연길시 연남 소학교 방과후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민들레 협회에 전달하였고 협약서 체결도 이루어졌다. 또한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황 및 교육방향, 평양 과학기술대학교 설립에 관련된 보고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인천YWCA는 인천평화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10월경에는 연변여성단체 지도자를 초청하여 연변-인천여성평화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6월 4일~5일 Y틴 지도교사 직무연수
- 6월 11일 자원순환녹색 나눔장터-소형가전제품 나눔바다

**춘천 YWCA**

● 황재욱 간사

**'애들아 밥 먹자' 캠페인**

춘천Y는 6월 2일 강원중학교 학생 630여명을 대상으로 '애들아 밥 먹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춘천Y 전 직원이 새벽 4시 30분부터 손수 만든 삼각 김밥 950여개와 음료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오후에는 강원중학교 학생과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식품성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부지역회장단연수**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북부지역회장단 연수를 실시했다. 총 35명으로 서울, 인천, 춘천, 강릉, 원주, 속초, 동해 7개 북부지역YWCA의 회장단과 사무총장들은 6월 15일 첫째 날 춘천YWCA에서 기관탐방과 토의, 강연 등의 일정을 가졌고 16일 둘째 날은 춘천YWCA 부속시설 탐방 및 회의 등의 일정을 가졌다.

- 6월 14일 회원대상 무료회원특강으로 EM비누 만들기



**광주 YWCA**

● 서정현 간사

**사회적기업 드림헬퍼사업단 개소식**

광주Y 드림헬퍼 사업단이 지난 6월 3일 광산구 신창동에 새로운 동지를 틀어 개소식을 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광주YWCA가족들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드림헬퍼 사업단 개소를 축하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적 기업으로써 나눔을 실천하

는 기관으로 우뚝서길 기대한다.

### 광주성빈여자사회망관 준공감사예배 및 준공식

6월13일 광주성빈여자 아파트형 생활관인 “희망관”의 준공감사예배 및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주YWCA가족들, 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성빈여사는 광주의 어머니인故조아라 명예회장이 지난 1952년 설립한 여자아동양육시설로서, 새로 준공한 희망관은 아파트형 생활실 6채와 부대시설을 갖추어 아동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생활하게 된다.

- 6월 17일 광주YWCA테마여행
- 6월 23일~24일 북구여성지도자 연수회
- 6월 28일~29일 서부지역야카데미 돌봄과 살림 강사 교육

### 남원 YWCA

● 조윤희 간사

### 마음열기 캠프

남원Y는 6월16일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마음열기캠프'를 하였다. 이번 캠프에서는 금산 보리암을 둘러보며 서로간의 우정을 돈독하게 쌓을 수 있었고, 은빛모래가 멋진 상주 해수욕장에서는 바다를 둘러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 6월 21일 살림·산모도우미 민들레 모임

### 목포 YWCA

● 정현정 간사

### 제10회 목포YWCA-진도군 만금친농회 친환경 우렁이 넣기

6월 17일 목포YWCA-진도군 만금친농회가 올해로 10회째 친환경 우렁이 넣기 행사를 가졌다. 만금면 들녘의 우렁이 농법 눈에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등 150여명이 방문하여 우렁이를 직접 넣었으며 우렁이 농법 쌀 계약재배 계약식을 가졌다

- 6월 4일 (토)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의날 프로그램

### 서귀포 YWCA

● 김지희 간사

### 가족 친화문화만들기

서귀포Y는 6월25일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인 '가족친화문화만들기'를 서귀포YWCA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총 15가족이 참가하여 '가족문패만들기'를 하였다. '가족친화문화만들기'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일, 가정 양립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가족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6월 27일 서귀포YWCA고령자인재은행
- 6월 29일 '건강한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실천 캠페인

### 순천 YWCA

● 김아라 간사

### 우리가족 함께 요리조리 교실

6월 8일 순천시 드림스타트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함께 요리조리 교실이 열렸다. 순천Y 이사인 한은미 영양사의 강의로 1강 김밥과 유부초밥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 가족이 만들어주는 레스토랑 요리, 더운 여름을 이기는 보양식이라는 주제로 총 5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 여수 YWCA

● 이경진 간사

### 충덕중학교와 함께하는 환경사랑-흙공 만들기과 바다수질개선활동

여수Y와 충덕중학교는 전교생 650여명과 여수Y자원봉사자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내운동장에서 수질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유용미생물 EM흙공 6700여개를 만들었다. 한 달 동안의 발효 및 건조 과정을 거친 EM흙공을 6월 17일 여수 만성리 방파제 인근에 투여하였다. EM흙공 투여로 참여청소년들이 바다 수질개선에 참여함으로써

써 지역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환경을 살리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역운동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6월 14일 늘푸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학부모 간담회 개최
- 6월 20일 이사위원연수

**익산 YWCA** ● 최유정 간사

**익산Y 합창단 제4회 생명사랑 정기연주회**

6월 10일 송리문화회관에서 익산 YWCA 합창단 정기 공연이 있었다. 6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합창단의 평안의 찬양, 은혜의 찬양, 비전의 찬양이 연주 되었으며 익산 YMCA 바로크 합창단, 금관 5중주, 테너 김정윤, 새벽 이슬 워십팀등의 특별 출연으로 열기가 더해졌다. 특히 Y합창단과 전북 음악협회 빅밴드의 반주와 협연으로 진행된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하모니’는 연주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 6월 3일 안전한 먹을거리 캠페인과 밥상 지킴이 학부모 교육

**전주 YWCA** ● 김은진 간사

**고령자 간병돌보미 교육**

전주Y는 5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2011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간병돌보미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다. 50세 이상 35명의 준·고령자들이 참여하여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특히 간병돌보미 취업지원을 위해 신세계병원과 취업지원 협약을 맺고 전문간병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3기 부모카운슬러대학 운영**

전주Y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6월 23, 24일 양일에 걸쳐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부모카운슬러대학을 운영하였다. LCSI 성격검사를 통해 자신과 자녀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성격에 맞는 학습지원 방법, 의사소통 방법,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6월 7일 2011 회원증모 발대식
- 6월 18일 청소년 보호법 교육 및 캠페인

**제주 YWCA** ● 강지혜 간사

**제주YWCA어린이집 개원 20주년 기념식**

제주Y어린이집은 지난 6월 11일 개원 20주년 기념식과 아나바다 바자회를 진행했다. YWCA가족들이 모인 축하의 자리를 빌어, 한결같은 사랑과 애정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식후 행사로 아나바다 바자회를 열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아울러 아이들에게 어우러져 함께하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어린이집 시설, 환경, 보육활동에 도움 주신 분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 YWCA어린이집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 6월 17~18일 2011 이사·위원 연수



**대전 YWCA** ● 강은혜 간사

**신입회원 환영회 및 회원증모운동시상식**

대전Y 신입회원환영회가 회원 70명이 모인 가운데 6월 16일 있었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에는 2011년 대전Y 회원증모운동 결과 발표와 시상식을 가졌다. 2011년 회원증모운동 결과는 회원 수 3,909명으로 목표대비 101%를 달성하였다. 증모운동시상에는 회원 중 차영희 회장, 2위는 오순숙 이사가, 직원 중 1위는 오현숙 사무총장 2위는 유덕순관장이 수상하였다. 영상을 통해 YWCA 운동을 소개하고 YWCA의 정체성에 대하여 차영희 회장의 강의 후 한명환(셀파대표)선생의 진행으로 공동체 놀이를 통해 회원들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다.

- 6월 11일 청소년운영위원회 별별프로그램 '성교육&안전교육'
- 6월 13일 사별가정을 위한 회복프로그램
- 6월 25일 어린이Y 역사체험단 청주, 진천

### 제천 YWCA

● 류인숙 간사

#### 어르신 자원봉사자 발대식

제천Y는 6월 17일 총주담 효나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 40명, 내·외빈 20명, 실무자 30명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어르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다. 지역을 위한 애정과 사회공헌 정신을 모아 갖게 된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앞으로 환경정화 활동, 지식 나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계획이다.

- 6월 20일 베이비시터 무료 개강 및 종강

### 천안 YWCA

● 김상미 간사

#### NGO 여성활동가들의 영그린 씬

천안Y 회장·사무총장을 비롯 지부 센터장, 본부직원 총 8명이 8월의 불벌더위를 피해 8월 18~20일 제주도로 생태여행을 떠난다. 이는 NGO여성활동가들의 영그린(Young Green) 씬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Y실무자들의 업무에서의 해방을 통한 씬, 자연과의 호흡을 통한 신체적&정신적인 씬, 사람,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 여행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동참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천안Y본부지부의 결속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2012년의 천안Y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 청주 YWCA

● 정미향 간사

#### 아빠의 자격-쿠킹파파

청주Y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 요리로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빠의 자격-쿠킹파파'를 6회 진행하였다. 아빠들은 다양한 요리를 만들면서 가족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려주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하였다.

#### Y-틴의 날

6월 18일 '나는 Y-틴이다'란 부제 아래 청주Y-틴의 날을 진행하였다. 총 80명의 Y-틴이 청소년 광장에 모여 조 구호, 조이름 선정을 시작으로 조별 단합 게임, 장기자랑 등을 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Y틴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 6월 15일 청주서현중학교 아침밥 먹기 캠페인
- 6월 14일 청주Y 살림돌보미 거리캠페인
- 6월 17일 생협 생산지 체험

### 충주 YWCA

● 김애영 간사

#### EM강사양성교육

충주Y는 6월 9일~10일 양일 간 EM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환경과 생명, EM이야기, 실습, 축산농가에서의 활용법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교육엔 총 17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 후 강사활동및 EM사랑 만들레를 만들어 EM 전파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을 다짐하였다.

- 6월 11일 어린이 환경체험-국립과천과학관
- 6월 25일 유소년 문화체험 -타조농장



“앰플로 집중 관리 받은 것처럼 눈에 보이게 달라져요”

## 앰플로 잡티를, 에센스로 피부톤을 아이오페 화이트젠 앰플 에센스

어느 순간부터 다양하게 생기는 화이트닝 고민들- 아이오페는 잡티, 피부톤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고기능의 투명에센스가 칙칙한 피부톤을 밝혀주는 동시에 고농축 앰플(스팟 화이트 캡슐)이 뿌리 깊은 잡티를 집중적으로 개선합니다.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

\*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

**가**  
 강릉 033. 651. 1385  
 거제 055. 682. 4950  
 경주 054. 772. 8141  
 고양 031. 919. 4040  
 광명 02. 895. 1966  
 광양 061. 762. 0012  
 광주 062. 524. 3511  
 군산 063. 462. 4491  
 김해 055. 332. 6000

**나**  
 남양주 031. 577. 7762  
 남원 063. 632. 7002  
 논산 041. 736. 7393

**다**  
 대구 053. 652. 0070  
 대전 042. 254. 3035  
 동해 033. 531. 3007

**마**  
 마산 055. 246. 8746  
 목포 061. 242. 1611

**바**  
 부산 051. 441. 2221  
 부천 032. 668. 9700

**사**  
 사천 055. 833. 9981  
 서귀포 064. 762. 1400  
 서울 02. 3705. 6000  
 서천 041. 951. 6400  
 성남 031. 701. 2501  
 속초 033. 635. 8663  
 수원 031. 252. 5111  
 순천 061. 744. 7990

**아**  
 안동 054. 854. 5482  
 안산 031. 483. 6536  
 안양 031. 455. 2700  
 양산 055. 367. 1144  
 여수 061. 654. 2161  
 울산 052. 247. 3520  
 원주 033. 742. 6090  
 의정부 031. 853. 6332  
 익산 063. 857. 8910  
 인천 032. 424. 0524

**자**  
 전주 063. 224. 5501  
 제주 064. 711. 8325  
 제천 043. 646. 6009  
 조치원 041. 865. 2432  
 증평  
 진주 055. 753. 6133  
 진해 055. 542. 0020

**차**  
 창원 055. 283. 9488  
 천안 041. 575. 0961  
 청주 043. 265. 3700  
 춘천 033. 254. 4878  
 충주 043. 848. 3240

**타**  
 통영 055. 641. 2537

**파**  
 파주 031. 945. 5998  
 평택 031. 651. 7701  
 포항 054. 274. 4444

**하**  
 하남 031. 793. 7771

**준비회**  
 밀양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